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36호 【루계 제25114호】 주체104(2015)년 12월 2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걸출한 정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회고위원회 결성

김정일동지회고 파키스탄전국위원회 결성식이 11월 23일 카라치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파키스탄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 등 인사들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그이이시야말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정치가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김정일각하를 끝없이 흠모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그들은 확언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전 국회 상원 의원 아마르 지트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정일동지회고 스웨리예위원회가 11월 23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 스웨리예공산당 국제비서 일리야 조리낀 닐쏜, 스웨리예공산당 피테보리위원회 집행위원 다니엘 우프스트룀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1월 26일 통일로씨야당산하 전로사회단체인 청년근위대 연해변강지부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부위원장 라구노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연해변강지역의 청년들속에서 널리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각하회고 타이위원회가 11월 12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쏭치트 풀랍이, 부위원장으로 타이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차나이 롱언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회고모임, 토론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령도자회고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위원회가 11월 19일 쓰르비아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국제비서 마리얀 꾸비크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기간에 수도와 지방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총비서회고 로므니아전국위원회가 11월 12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꼰쓰딴띤 로따루가, 부위원장으로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씰레 러꺼뚜슈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회고모임, 토론회, 강연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회고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위원회가 11월 15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 서기장으로 총비서 아드난 이스마일과 정치국 위원 아브달라 아브달라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장군회고 로므니아위원회가 11월 18일 부꾸레슈띠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체사상연구 로므니아전국위원회 위원장 바씰레 오를레아누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출판보도물에 게재하며 업적토론회, 강연회, 회고모임 등 회고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회고위원회가 11월 23일 두샨베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샤브돌로브와 부위원장 딸바꼬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등 여러가지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민주꽁고의 킨샤사리메떼구역에서는 업적토론회가, 킨샤사 낌자쎄끼구역에서는 좌담회가, 베닌 꼬또누에서는 독보회가, 나이제리아 라고스에서는 영화감상회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김정일대원수회고 민주꽁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또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력사에 류례없는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조선의 사회주의를 수호하시였을뿐아니라 조선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도록 하심으로써 조선반도에 우리 민족끼리를 리념으로 하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은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서 강성부흥하는 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오늘 조선의 위력은 세계에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고 격찬하였다.

베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를 독보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김일성주석과 꼭 같으신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령활무쌍한 지략을 지니신 희세의 선군령장이시다.

조선로동당은 지금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하면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선군조선의 기상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여 강성국가건설과 세계자주화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다.

나이제리아 라고스에 있는 데올라쎄고에주식회사 사장은 우리 나라 영화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보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였다며 천만군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놓으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불멸의 업적은 무궁번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에서는 토론회가, 민주꽁고에서는 그이의 고전적로작에 대한 독보회가, 마쟈르, 슬로베니아에서는 강연회가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민용항공 및 관광상과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등 토론자들은 김정일각하에 대한 방글라데슈인민의 흠모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라고 칭송하면서 그들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냈으며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었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당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더 큰 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민주꽁고청년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 대한 독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경이적인 전변들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있다.

2016년 5월초에 열리게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중대한 전환적계기로 될것이다.

마쟈르로동당과 슬로베니아조선친선협회에서 진행된 강연회들에서 출연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과 승리와 영광의 로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고있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의 불비람을 일으키고있다, 인민을 이끌어 세기적변혁을 이룩해온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승리와 영광만을 길이 떨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를 모시고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이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모든 측면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술적요구에 부합되는 지하전동차의 성능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속도도 좋고 제동상태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힘과 기술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인민들이 리용하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수입병이라는 말자체를 없앨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세계적수준의 지하전동차를 계렬생산할것을 호소하시였다.

중국의 신화망, 환구망, 일본의 교토통신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미국의 인터네트홈페지 《레디트》는 김정은령도자께서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많은 로력과 먹이를 절약하면서도 물고기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그물우리양어가 세계적인 양어추세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에서 이동식그물우리양어를 적극 장려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동식그물우리양어가 인민들에게 안겨줄 물고기문제를 푸는데서 커다란 예비로 된다고 하시면서 각 도, 시, 군들에서도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꾸려놓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환구망, 보도망, 청년망, 국제방송망, 길림망, 세네갈신문 《러 뽀뿔래르》,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동북망, 파키스탄신문 《월드 트리뷴》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식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이 소식과 함께 고 리을설동지의 장의식에 참가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중국, 도이췰란드, 파키스탄, 민주꽁고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 총리사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모스크바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 총리사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창건 14돐에 즈음하여 귀 당 총리사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 당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을 커다란 관심속에 주시하며 지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이미 이룩된 합의에 기초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4(2015)년 12월 1일 평양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선행설비생산 결속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는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굴지의 기계제작기지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당 제7차대회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뜻깊은 올해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대상설비생산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지난 11월초부터 불과 보름동안에 또다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원추관과 굽은관들을 성과적으로 제작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 갈수록 확대되고있는 중요발전설비제작전투성과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완공에 기여한 련관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베풀어준 당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분발해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비상한 투쟁정신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련합기업소에서 전국각지에 보내줄 발전설비생산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추진된 큰 규모의 원추관들과 굽은관들의 제작과정은 뜻깊은 올해를 전례없는 발전설비생산성과로 빛나게 장식하려는 대안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혁명적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올해전투의 나날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필요한 발전설비전량을 최단기간에 생산보장하는 기적을 창조한 이곳 생산자들은 이번에 또다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매몰부분품들인 원추관과 굽은관제작전투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결사관철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였다.

양승호동무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은 기업소적인 수많은 대상설비생산과 동시에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발전설비제작을 주타격대상으로 정하고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일군들은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긴장한 자재를 앞질러가며 보장하는 한편 생산공정간 련계를 긴밀히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온 기업소의 관심속에 생산단위들에서 맡은 과제를 최단기간에 수행하기 위한 혁신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10여톤의 철판을 비롯한 내부예비가 적극 탐구동원됨으로써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선행설비를 최단기간에 생산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대상설비제관직장에서 집채같은 원추관들과 굽은관들을 빠른 기간에 제작완성하기 위한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쳤다. 조호성, 박승억, 홍철준동무를 비롯한 여러 작업반의 로동자들은 낮에 밤을 이어가며 한사람이 두몫, 세몫씩의 일감을 맡아 수행하는 헌신적인 투쟁기풍을 발휘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며 교대가 따로 없이 벌린 10여일의 전투기간에 무려 1t에 달하는 용접봉을 소비하면서 맡은 제관과 용접작업계획을 날마다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김석근동무를 비롯한 보수작업반원들은 철판가공설비의 전동기수리를 도맡아 해제끼는 등 제관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고리에 힘을 넣어 현장의 숨결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였다. 김광식동무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맡은 직장의 전투원들도 부족한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부분품들을 성과적으로 제작할수 있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련합기업소적으로 보통때라면 한달정도 걸려야 할 큰 규모의 원추관들과 굽은관들이 불과 10여일동안에 제작완성됨으로써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발전설비들을 건설에 지장없이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생산자재들이 들어오는족족 제작전투실적을 련이어 확대할수 있도록 해당한 제관 및 가공설비들과 지구, 장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 힘을 넣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당과류생산공정의 무인화 실현

장자산종합식료공장에서

자강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장자산종합식료공장 당과류생산공정의 무인화, 물엿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설비로 수천t생산능력의 과자생산공정, 사탕생산공정의 무인화와 물엿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자강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거둔 또 하나의 성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늘이며 나아가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기계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동화된 계량기, 반죽기, 포장기, 과자로 등 당과류생산공정의 무인화, 물엿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50종에 달하는 수십대의 설비들을 빠른 시일내에 제작하도록 하였다.

도안의 기계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은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분담된 설비들을 설계의 요구대로 제기일에 훌륭히 제작하였다. 이들은 수입설비에 비해 성능이 월등한 자체로 만든 설비들에 대한 설치와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당이 바라는 일이라면 무조건 해내는 투쟁본때, 최첨단돌파로 비약하는 주체적인 기계공업의 위력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도의 어느 한 연구소의 연구사들과 공장의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자, 사탕생산공정의 조종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고심어린 탐구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원료계량, 투입, 반죽, 성형, 구이, 포장에 이르는 무인화된 과자생산공정과 갖가지 설비들, 백수십개의 수감요소, 자동수행기구들로 무인화된 사탕생산공정이 확립되였다.

또한 물엿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

과자, 사탕생산공정의 무인화가 실현되여 인민들에게 차례질 당과류의 맛과 질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종전에 비하여 과자생산능력은 5배이상, 사탕생산능력은 10배로 높아지게 되였다.

도에서는 장자산종합식료공장이 큰 은을 내도록 원료,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도의 인민들에게 더 많은 당과류를 안겨주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세웅

정 론

동해포구의 《이채어경》

내 조국의 바다에 또다시 변이 났다.

비단우에 꽃수를 놓듯 자랑많은 우리네 바다에 희한한 새 소식, 눈부신 새 선경이 꽃펴났다.

여기는 온 나라에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으로 소문난 8월25일수산사업소이다.

바다도 끓고 사람도 끓는다.

만경창파를 헤가르며 질주하는 《단풍》호들, 물고기가 가득찬 그물을 련속 끌어올리는 만선의 고기배들을 반기여 갈매기도 춤을 춘다. 출렁이는 물결의 이랑이랑에 《바다 만풍가》의 흥겨운 노래가락이 실려 운치를 돋구는 속에 하륙장에 쏟아지는 물고기사태로 참으로 기막힌 경사가 났다.

하루에 1년의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놀라운 어로기적 창조!

며칠동안에 수천t의 어획량이 기록되는 새로운 혁신 창조!

어제는 우리의 바다가 황금해라는 새옷을 떨쳐입더니 오늘은 여기저기서 물고기산이 솟아오르는 희한한 풍경, 기막힌 풍경,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흐뭇한 풍경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전례없는 이 물고기대풍을 보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그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찬비가 쏟아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곳을 찾으시여 수산사업소의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맡으니 만시름이 풀린다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고있는 어로전사들이 있기에 《이채어경》이라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선경이 펼쳐질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동해포구의 《이채어경》!

불러만 보아도 바다만풍의 흥취에 어깨춤이 절로 나고 우리 수령님시대에 태여난 노래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의 경쾌한 선률이 바다의 풍년가되여 또다시 울리는것만 같아 절로 환희에 휩싸이게 된다.

참으로 변이 나는 우리의 바다, 나날이 커만 가는 물고기산자랑이다.

어제는 8월25일수산사업소가 통장훈을 부르고 오늘은 다른 포구들에도 물고기사태가 났다. 인민군대 수산단위들이 총돌격하여 수십만의 물고기고지를 점령했다는 희소식도 전해졌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에는 이름난 절경들이 많다. 해금강과 해칠보, 통천의 총석정이며 명사십리 그리고 서해의 몽금포자랑…

허나 《이채어경》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니다.

《이채어경》!

아직은 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흥하는 이 세월, 희한한 바다사변의 직접적인 목격자로서 심장의 진하디진한 체험을 담아 목청껏 터치게 된다.

이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창조된 이채로운 사회주의바다선경이다.

우리 바다에 만풍의 새 자랑 꽃피운 기적의 물고기폭포경이고 인민의 행복창조를 위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경치이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사회주의명화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각이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바다도 많고 아름다운 바다가의 명승들도 허다하다. 그러나 바다는 넓어도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바다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조선의 바다는 왜 아름다운가. 이 바다의 가장 볼만 한 흥취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의 눈부신 물고기경사를 누구나 달려와 안아보자.

우리의 선경은 그 어떤 절묘한 풍경이나 유람길의 구경거리가 아니다.

우리 인민의 행복상이다. 인민이 누리는 최상의 행복이 곧 이 땅의 제일가는 경치이고 선경중의 선경이다!

바로 이것이 땅만이 아닌 바다도 인민을 위한 행복창조의 활무대로 전환시켜가는 우리 당의 창조관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시대어이고 흥하는 사회주의바다의 새 노래인 《이채어경》!

새겨볼수록 이 말이 시사해주는 의미와 시대에 던지는 충격은 참으로 크고 심오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이 기뻐한다. 어디 가나 《단풍》호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누구나 더 좋아질 래일의 생활에 대하여 확신한다. 군인들의 식탁에 웃음이 가셔질줄 모르고 자식들을 초소에 내세운 이 나라 어머니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실거린다. 어느 이름모를 두메산골 집집의 처마에도 물고기두름이 흐뭇하게 걸리는 희한한 새 풍경이 또다시 펼쳐진다.

농산, 축산과 함께 수산을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축으로 높이 내세운 우리 당의 령도는 그 얼마나 눈부신 현실을 안아오고있는것인가.

사회주의바다향기를 꿈같이 노래하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황금해의 새 력사의 시작과 더불어 올해에는 세상을 놀래우는 《이채어경》이 꽃펴났다.

그야말로 새라새로운 기적들이 다투어 창조되는 우리의 바다이다. 이제는 확고히 우리 바다가 물고기사태가 쏟아지는 황금해로 되였으며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덕을 주는 보배로운 바다가 되였다.

《이채어경》은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해 피운 또 한송이 행복의 꽃이며 바야흐로 사회주의만복을 누리게 될 미래의 새 아침을 부르는 장쾌한 봄우뢰이다.

확실히 나라가 흥할 징조이다.

땅우에는 희한한 행복의 금방석들이 비좁도록 늘어나고 하늘에는 우리 비행기가 자랑스러운 비행운을 새길 때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시운전의 동음을 울리더니 이제는 바다에까지 인민의 행복의 열매 주렁진다.

그야말로 조선은 하늘과 땅, 바다가 통채로 인민의 행복의 선경으로 된 기적의 나라이다. 《이채어경》이야말로 우리 원수님시대에 금수강산 내 조국땅에 이어 바다에 새겨지는 또 하나의 《조국찬가》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부푼다.

각지에서 과학농사바람이 일어번지고 철령아래 고산땅에 사과바다가 끝간데없이 펼쳐질 때 저기 저 세포지구에서는 고기폭포 쏟아질 래일을 선명히 그려주며 소떼, 양떼, 염소떼가 흐른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수산부문에서도 힘차게 열리고있으니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자랑찬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이 가슴벅찬 현실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각 방면에서 향상시키려는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시위하는 힘있는 과시로 되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큰 통장훈을 불러올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한상의 사진이 우리의 눈시울을 젖게 한다.

사회주의바다향기 차넘치던 그날의 수산사업소에 남기신 절세위인의 숭고한 화폭이다.

우리 원수님 천연대리석같이 하얀 물고기판대기를 두손으로 정히 안아보시는 모습,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그 차거운 기운도 느끼지 못하신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으랴.

례사로운 모습이시다. 우리가 매일같이 목격하는 위대한 어버이의 인간미의 분출이였다.

물고기를 보물처럼 드신채 놓을줄 모르시던 우리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이 삼가 마음속으로 아뢰인 고마움의 인사는 무엇이였던가.

오늘의 물고기대풍을 안아오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했다. 하늘땅가득 차넘치는 인민의 감사의 정을 합치고합쳐 우리는 목청껏 터친다. 황금해의 새 력사를 앞장에서 써가시는 내 조국의 바다의 위대한 주인, 《이채어경》의 창조자는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라고.

어떻게 시작된 황금해의 새 력사이고 어떻게 꽃펴난 《이채어경》이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의 충직한 어로전사들이 안아온 물고기대풍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중시하시던 나라의 수산부문을 반드시 추켜세워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내줌으로써 수산부문의 새 력사를 우리의 손으로 한페지한페지 빛나게 써나가자고 하시던 절세위인의 숭고한 그리움과 충정의 세계에 마음은 한없이 경건해진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중시하시던 나라의 수산부문!

바로 그것이다.

황금해의 력사는 빈터우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놓으신 인민사랑의 바다가 황금해의 첫 시원이다.

잊을수 없다. 일제놈들이 버리고 간 다 낡아빠진 배 몇척과 다 깨진 나무잔교밖에 없던 황량한 바다가, 그 바다에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수산사업소들을 그쯘히 일떠세워주시고 때로는 발목이 시도록 모래불을 걷기도 하시며 먼바다어로에 쓰라고 전쟁시기 자신께서 쓰시던 쌍안경까지 보내주시던 어버이수령님.

물고기!

이제는 이 말만 나와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 생각에 목메인다.

나에게로 모여드는 이 물고기들이 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이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넉넉히 먹이시려는 그렇듯 강렬한 념원안고 그이께서 바쳐오신 불멸의 날과 달속에 《물 절반, 물고기 절반》, 《물고기들의 사열식》, 《우리의 철갑상어는 바다로 간다》는 뜻깊은 말도 태여났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인민들을 위한 물고기공급문건에 눈물겨운 친필을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황금해의 눈부신 선경, 인민의 행복을 소리쳐부르는 물고기사태는 그대로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전에 삼가 드리는 충정의 꽃다발이고 그분들의 뜻과 정을 받들어 대를 이어 빛내여가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화이다.

억장이 무너지는 피눈물의 그 언덕에서 집집의 문들을 두드리며 장군님사랑을 전해주던 사무치는 이 나라의 물고기이야기를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그것이 우리 원수님 혁명의 중하를 떠메시고 맨 처음 집행하신 장군님의 유훈들중의 하나임을 그때는 다 몰랐다. 우리 원수님 오래도록 그릇에 물고기를 담아보시면서까지 군인들과 아이들의 하루급식량을 가늠해보실 때에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의 행복을 자나깨나 그려보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이 불타고있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황금해의 새 력사, 《이채어경》의 기적의 페지를 위대한 수령님들과 함께 쓰시였다.

자그마한 수첩이 떠오른다.

우리 수령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구들에서 때없이 꺼내드시던 그 수첩을 련상시키는 우리 원수님의 수첩!

바람세찬 포구에 서시여 원아들에게 하루에 물고기를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계산까지 해보신 그 사랑, 그 은정속에 황금해의 새 노래가 태여나지 않았던가.

파도에는 미세기차가 있어도 어머니당의 사랑은 영원한 만조로 출렁인다. 파도사나운 배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놓아오신 그 하많은 자욱들…

때로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배의 기관실에까지 들어가시여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새로 건조한 배의 이름을 《단풍》호라고 달아주시였고 몽금포를 비롯한 서해어장에서의 집중어로전투도 몸소 조직해주시였다.

바다우에는 자욱이 찍혀지지 않는다 했지만 그이께서 찍어가신 그 자욱자욱은 그대로 인민의 행복으로 꽃펴났으니 진정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은 자신의 온넋과 땀, 헌신으로 거창한 바다를 인민을 위한 대양어장으로 만드신 이 조선의 바다의 위대한 창조자이시다.

세상에 없는 멸사복무라는 시대어도 바로 그이께서 안아오신 바다의 기적과 더불어 태여났다.

너무도 평범한 하루였다. 그러나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 당중앙청사에 흐르는 시간은 언제 한번 평범해본적이 없다. 잊지 못할 그날 그이께서 오래도록 보고 또 보신 사진속의 모습들.

푸짐하게 차려놓은 식탁을 마주하고 좋아라 반기는 원아들의 앵두볼 모습이였다. 물고기차를 맞이해 기뻐하는 보양생들의 모습이였다.

행복이 넘치는 그 광경에서 이름 못할 충동을 느끼시며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나아가자고 뜻깊은 친필을 남기신 진정의 세계…

참으로 불타는 그 사랑과 헌신, 믿음과 더불어 온 나라 인민들을 울린 《최고사령관의 사진편지》에 대한 혁명일화도 태여났고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물고기대풍을 안아온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이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으로부터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받아안는 감동깊은 화폭도 펼쳐졌다.

얼마나 훌륭한 풍경이요, 오늘 오지 않았으면 후회할번 했소라고 하시며 물고기대풍앞에서 혁명하는 멋을 찾으시던 그이, 앞으로 물고기잡이에 필요한 어구보장과 배수리는 자신께서 맡겠다고 하시며 멸사복무의 앞채를 메고 달리시였으니 인민을 위한 우리 원수님의 헌신의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디란 말인가.

물고기는 해류를 따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의 그 리치우에 또 하나의 철리를 새긴다.

조선의 물고기는 그 어떤 해류가 아니라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따라온다!

우리의 황금해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치신 인민사랑의 바다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갖 심혈을 다 바쳐 뿌리신 한방울, 한방울의 땀방울이 그대로 황금을 이룬 행복의 바다이다. 《이채어경》은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속에서 불길치는 인민사랑의 빛발이 아름다운 색채가 되고 신비의 조화를 이루며 그려진 세상제일의 사회주의명화이다.

《이채어경》!

그것이 그토록 아름답고 세상에 없는 이채를 띠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결사의 각오를 안고 받들어가는 충직한 애국자들의 피땀이 스며있기때문이다.

오늘의 경사는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하루빨리 푸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끝에 닿은 그 소원을 심장에 간직한 사람들, 인민의 행복앞에서 지으시는 그이의 해빛같은 미소와 보이지 않는 심혈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느낄줄 아는 바다의 애국자들이 안아온 헌신의 결정체이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어로전사들의 투쟁기를 다시금 펼쳐본다.

말그대로 평화시기의 격렬한 해전이였다. 태풍경보도 이들의 걸음을 멈춰세우지 못했다. 순식간에 배를 삼킬듯이 길길이 날뛰는 파도, 갑판우에 무서운 속도로 쓸어드는 바다물속에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드세찬 립체전, 섬멸전을 과감히 벌렸다. 높은 증산목표를 제시하시며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피와 땀, 목숨까지 바쳐가며 지킨 그 불굴의 충정으로 하여 오늘의 물고기풍경은 그리도 아름다운것이다.

령도자의 구상을 관철하는데서 인생의 제일가는 희열을 느낄줄 아는 이런 애국자들이였기에 앉아서 물고기를 기다린것이 아니라 추격하여 잡고 포위환을 좁혀서 잡고 큰 배로도, 작은 배로도 잡았다. 이 거대한 창조의 힘앞에, 당정책옹위전의 용맹앞에 제국주의의 악랄한 제재의 그 물도 갈가리 찢겨져나갔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여서 우리 원수님 그들모두를 귀중한 혁명전우, 참 좋은 동지로 불러주시며 팔을 끼신것이고 평범한 어로공들의 안해들에게도 뜨거운 인사를 보내주신것 아니랴.

우리의 바다는 그래서 이채롭다.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인민 위해 바치신 사랑이 그대로 바다의 황금으로 주렁져 이 세상 제일로 성스럽고 그이와 한마음한뜻이 된 멸사복무의 투사들의 모습이 비껴 이채롭다.

아, 자랑스러워라. 끝없이 깊고 아름답고 눈부신 조선의 바다여!

우리 네 품에서 길이길이 기쁨의 열매를 따들이며 사회주의만복을 노래하리라. 물고기황금산 쌓아놓고 로동당만세를 온 세상이 다 듣도록 목청껏 터치리라.

* *

《이채어경》!

이 말과 더불어 내 조국의 바다가 더욱 세찬 격랑을 일으키고있다.

우리 당이 매일같이 선참으로 기다리는 소식, 조국에 힘을 주고 인민에게 신심을 주는 물고기대풍소식이기에 바다는 온 나라의 마음이 달려오는 곳, 가장 격렬한 위훈의 활무대이다.

바다야말로 오늘의 백두전구, 백두의 칼바람전장이다. 일군들로부터 어로공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한전호에 선 투사들이 되여 물고기산을 높이 쌓아간다.

어황조건은 여전히 불리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이 앞을 막는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이 온 사회를 다시한번 분발시키고있다. 이들이 창조한 《이채어경》은 당정책옹위전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우는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단풍》호의 만선기 날리는 어장에 한번 와보라!

여기선 불어오는 바람부터가 다르다.

분명 무서움을 모르는 돌진의 바람, 백두의 칼바람이다. 한몸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물이 되여 선창마다 물고기 가득 쌓아가는 어로공들, 이들이야말로 자기들이 지켜선 곳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일선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돌진하는 오늘의 주문진해전의 용사들, 월미도의 혁혁한 무훈담을 또다시 사회주의바다에 새겨놓고있는 공격정신의 으뜸가는 체현자들이다. 이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황금해의 기적을 창조해가는 이 숨결, 이 기상, 이 돌진앞에 패배주의의 한숨소리는 산산이 흩날려간다. 책상머리에 앉아 걱정이나 하는 사람, 투기식, 소방대식일본새는 황금해와 인연이 없다.

물고기는 똑같이 온다.

문제는 사상관점에 있다. 당정책을 교과서의 글줄로가 아니라 온넋과 피와 땀으로 관철하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처럼 불같은 충정을 지닌다면 태풍도 물러서리라, 산악도 길을 비키리라.

어느 고장, 어느 일터에나 《이채어경》과 같은 만복의 선경을 다계단으로 펼쳐놓자.

하늘높이 쌓아가는 석탄산과 비료산도, 용해장에서 쏟아내는 쇠물폭포도 이채로운 우리 생활의 만경화이고 출하장과 상점마다 가득찬 우리 제품바다도 사회주의제일경치이다.

일군들부터가 앞장서야 한다. 바다바람에 얼굴이 트고 화선지휘를 하느라 목이 꽉 쉬였어도 어로공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데서 락을 느끼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의 생활기풍은 얼마나 좋은가. 한몸이 깡그리 파도에 부서진대도 돌격침로를 앞장에서 열수만 있다면 기꺼이 웃으며 뛰여드는 육탄정신, 매일매일 마음의 천평에 인민을 위해 바친 땀방울의 무게를 달아보는 그지없이 순결한 량심, 두어깨로 당정책을 억척같이 받들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고임돌이 되는 그런 정신을 지닌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이채어경》!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이며 오늘의 총진군대오에 울리는 장쾌한 승전포성이다.

바다의 기적에 화답하여 전체 인민이 활화산처럼 일떠서자!

우리 당과 혁명력사에 특기할 장으로 아로새기게 될 영광의 5월에로 향한 장엄한 오늘의 투쟁에서 참전자와 관조자가 따로 있을수 없다. 후날 후대들이 묻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피땀으로 안아온 창조물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도록 모두다 만복의 선경창조를 위한 대진군에 떨쳐나서자.

내 조국의 바다여!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안고 전진 또 전진하는 이 나라 인민의 모습을 비껴담고 격랑치라.

천하의 절경, 인민의 행복의 노래를 끝없이 합창하라!

박 옥 경, 최 유 일

단상

초소에서 온 편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최고사령관과 지휘관들을 믿고 자기의 귀한 자식들을 맡겼는데 우리는 병사들의 친아버이가 되시여 온갖 사랑과 정을 부어주신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군인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며칠전 취재길에서 우리는 보통강구역 락원동 29인민반 강순녀녀성의 집에 온 초소의 아들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겨운 아들의 군사우편함주소가 적힌 편지의 겉봉을 뜯는 강순녀녀성의 마음은 마냥 설레였다. 무슨 소식일가?

《…요즘 부대엔 도루메기풍년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속에 매일매일 끼니때마다 식탁에 도루메기찬이 오르군 합니다.

부식물창고마다에 물고기가 가득하니 도루메기를 튀겨서도 먹고 말리워서도 먹습니다. 얼마전엔 식당근무를 서는 우리 분대동무들이 도루메기식혜를 담그었다나요.

이젠 식탁마다에 그득히 오르군 하는 물고기가 물릴 정도입니다. …》

금시라도 물고기냄새가 물씬 풍기는듯 한 아들의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강순녀녀성의 얼굴은 활짝 웃고있었으나 눈굽은 축축히 젖어있었다.

최전연초소에 선 아들이 건강하여 군사복무를 잘한다는 소식만도 기쁜 일인데 매일매일 도루메기찬까지 먹는다니 어찌 가슴뭉클해지지 않으랴.

문득 강순녀녀성의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바다를 펼치고 산을 이룬 물고기무지들앞에서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류다른 기념사진이였다. 그때 자식들을 초소에 세운 온 나라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기뻐했던가.

끓어오르는 격정속에 보고 또 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심장으로 터치였던 후방가족들이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사회주의바다향기가 물씬 풍기는 초소의 편지를 받았으니 세상에 이런 큰 기쁨이 또 없을상싶었다.

동네방네 편지이야기는 끝없이 전해졌다. 우리 아들이 《도루메기편지》를 보내왔다오. 우리 원수님 사랑어린 물고기를 우리 자식들이 먹는다오. …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생겨난 또 하나의 시대어—《황금해》, 《이채어경》, 그와 더불어 이 나라의 초소와 가정들에 《도루메기편지》라는 말이 생겨났으니 이것은 초소의 병사들뿐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에게까지 따뜻이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일화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눈앞에는 초소의 병사들이 고향에 보내오는 기쁨의 편지, 그들의 부모들의 감격에 넘친 모습들이 선히 보이는것만 같았다.

본사기자 오 은 별

교육자살림집들에 차넘치는 사회주의바다향기

사랑의 물고기를 받아안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직원들

동해가 끓고 포구마다 만선기가 휘날리는 요즘 우리 교육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사랑이 또다시 전해져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정치와 과학중시, 교육중시정책이 현실에 구현되여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공고화되였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육관에서는 미래과학자거리 새 살림집을 받아안은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그 가족들의 모임이 있었다.

모임장소에는 혁명인재들을 키워내는 우리 교육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차넘치고 그 은정에 보답해갈 맹세가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모임에 이어 은정어린 살림집을 받아안은 교원, 연구사들과 가족들을 축하하는 공연무대가 펼쳐졌다.

그런데 공연도중에 뜻밖에도 대학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이 무대에 나섰다.

그는 격정에 넘쳐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사랑에 의하여 인민군대에서 잡은 물고기가 대학에 도착하게 된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전해주는것이였다.

순간 장내에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지고 만세의 환호소리가 울려퍼졌다.

궁궐같은 살림집을 받아안고 고마움과 행복에 겨워 기쁨은 끝이 없는데 사랑의 물고기를 또다시 안겨주시니 날마다 복에 복이 겹치는 이런 경사스러운 일을 정녕 무엇으로 표현할수 있단 말인가.

모두가 사랑의 물고기를 실은 차들을 맞이하려고 일제히 달려나갔다.

이어 물고기를 실은 자동차들이 대학구내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뜨거운 격정의 파도가 온 교정을 휩쓸었다. 대학교직원들은 또다시 가슴을 들먹이며 만세를 불렀다.

지난해에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첫물사과를 남먼저 안겨주시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물고기도 안겨주시니 이 하늘같은 은혜에 무엇으로 다 보답할수 있는가고 눈시울을 적시는 사람들마다 끓어오르는 격정으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미래과학자거리 새 살림집에서 사랑의 물고기를 받아안게 된 교원, 연구사들과 가족들의 가슴은 더욱 격정으로 설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 최전방초소를 지키는 사랑하는 전사들도 있고 북방의 추위속에서 발전소를 일떠세우는 영웅청년돌격대원들도 있으련만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먼저 대해같은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니 무슨 말로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마음속에 차넘치는 고마움을 다 아뢰일수 있는가고 흥분에 겨워하는 교육자도 있었고 사회주의바다향기 차넘치는 인민군대의 수산사업소들을 찾으시여 랭동창고도 돌아보시며 환히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가슴뜨겁게 어리여와 눈물없이는 받아안을수 없는 사랑의 물고기라고 목메여하는 교육자들의 안해들도 있었다.

사회주의바다향기가 흘러드는 교육자들의 가정에서는 그날 어떤 행복의 웃음꽃이 펼쳐졌던가.

사랑의 물고기를 처남을 비롯하여 친척들에게 나누어주며 교육자들을 위해 돌려주는 우리 당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꽃을 피웠다는 광업공학부 교원 최영호동무의 가정과 온 가족이 모여앉아 눈물을 머금고 보답의 맹세를 다졌다는 학부장 김성일동무의 가정만이 아니였다. 신선한 물고기로 어떻게 하면 다양한 료리들을 더 맛있게 만들어먹을수 있을가 하고 가정주부들이 서로 오가며 경험도 나누었다고 하면서 교육자가정들의 기쁨에 대해 말하는 학부장 로춘식동무의 안해 조순옥녀성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감동깊은것인가.

다음날에도 온 대학에서는 사랑의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칠줄 몰랐다.

궁궐같은 새 집에 놓여있는 모든것이 갈수록 정이 들고 살아볼수록 편리한 호텔같은 집, 행복의 절정에서 우리가 산다는것만 해도 가슴뿌듯한 심정인데 사랑의 물고기를 보내주시니 세간나는 자식에게 무엇이나 더해주고싶은 어머니의 마음인들 이보다 더 다심하고 따뜻할수 있겠는가고 격정을 터치는 교육자들모두가 과학기술로 사회주의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과학의 기관차로 사회주의를 전진시키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를 심장에 새기였다.

정녕 사회주의바다향기는 그대로 후대교육사업을 책임진 우리 교육자들의 가정에 당이 안겨주는 사랑과 믿음으로 흘러들었다.

그 사랑, 그 믿음은 대학교육자들의 가슴가슴을 선군시대의 교육자된 보람과 긍지로 높뛰게 하고 그들의 심장속에 꺼질줄 모르는 열정의 불길, 지칠줄 모르는 힘과 정력을 안겨주며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 비약을 일으켜가려는 맹세로 세차게 끓게 하고있다.

얼마전에 우리 식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시여 공장의 현대화에 기여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을 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전례없는 과학기술성과로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할 결의를 굳게 다지는 자동화공학부 강좌장 김룡수동무와 과학기술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높이 부르며 우리 당을 받드는 길에 가족들도 대를 이어 끝까지 충실하도록 할 결심을 터놓는 박사원원장 김순명동무며 정보과학기술대학 강좌장 김순희동무를 비롯하여 모든 교직원들의 가슴마다 보답의 맹세, 실천의 맹세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사는 교육자의 안해가 된 자랑과 긍지는 끝없다고 하면서 남편들의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도와주어 이 사랑, 이 은덕에 꼭 보답해갈 결의를 다지는 정보과학기술대학 연구사 강경호동무의 안해 최금주동무와 전기공학부 강좌장 진은철동무의 안해 장화순동무를 비롯한 교육자안해들의 진정 또한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의 앞장에서 당이 바라는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우리 조국을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 온넋과 피와 땀을 다 바쳐갈 보답의 맹세가 뜨겁게 흐르는 대학에 비약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공로혁

은정어린 물고기에 깃든 그 사랑 이야기하며 미래과학자거리의 교육자 가정들에 행복의 웃음 넘쳐난다.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동해전역이 들끓는다, 계속 돌격 앞으로!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 더 높이 울리게

강원도의 수산부문 당조직들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강원도의 수산부문 당조직들에서 겨울철물고기잡이에 떨쳐나선 어로공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다가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겨울철물고기잡이가 시작되기 전에 도당위원회에서는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진행하고 능력있고 책임성이 높은 일군들로 수산사업소들에 대한 분담을 하여 배수리와 어구자재준비를 짧은 기일에 끝내도록 하였다.

특히 도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겨울철물고기잡이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심각히 분석총화하고 올해 물고기잡이전투에서도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도당일군들과 수산부문의 당일군들이 중심어장을 타고앉아 어로공들과 함께 더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기간에 진행할 정치사업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물고기잡이에 떨쳐나선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불러일으키는 집중경제선동을 적극적으로 들이대고있다. 선전선동부의 지휘밑에 도예술단과 도예술선전대의 예술인들이 여러 수산사업소들에 나가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풍어기를 날리며 포구로 돌아오는 어로공들을 축하하는 환영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수산관리국 당조직에서는 방송선전차들을 수산사업소들의 부두와 물고기하륙장에 집중시켜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과 도수산부문 당일군들이 중심어장들에 진출하여 어로공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여러 수산사업소들을 맡고 나가 모든 어로공들이 올해 겨울철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도록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그리고 하륙장들에서 잡아들인 물고기들을 제때에 처리할수 있게 전기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고 어구자재를 더 보충해주며 배수리를 빨리 다그칠수 있게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있다.

원산시와 문천시, 천내군과 통천군, 고성군을 비롯한 바다를 낀 시,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많은 후방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들을 찾아가 어로공들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먼바다에서 생활하는 어로공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건보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원산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은 물고기잡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어주도록 하였으며 직접 어로공들과 같이 일도 하면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도록 떠밀어주었다.

도수산관리국 당위원회 책임일군은 물고기잡이전투로 들끓는 전투장에 내려가 어로공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는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기간 장덕수산사업소를 맡고 내려가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처럼 더 많은 물고기를 잡자고 열렬히 호소하면서 어로공들과 함께 중심어장을 타고앉아 물고기잡이실적을 높이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도안의 수산사업소들의 당일군들과 수산협동조합들의 일군들도 배들에 올라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리면서 매일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어로공들을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와 수산부문 당조직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하여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기간에 전례없는 물고기잡이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도의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지난해보다 보름이상 앞당겨 도루메기잡이를 시작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760여척의 크고작은 배들이 중심어장에 진출하여 사회주의증산경쟁을 벌리면서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린 결과 현재까지 계획보다 훨씬 많은 도루메기를 잡아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물고기대풍으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도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힘찬 어로전을 들이대고있다.

원산, 통천수산사업소, 고성바다가양식사업소를 비롯한 도수산관리국아래 수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밑에 불리한 날씨조건에도 아랑곳없이 치렬한 어로전을 벌려 물고기잡이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의 송전, 황석, 군산수산협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도 과학적인 어로방법으로 11월 26일까지 계획한 도루메기잡이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도안의 부업수산단위들에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어로전투를 벌려 도적인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도당위원회와 도의 수산부문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화선식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들이대며 고기배들과 하륙장들에서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공격전의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

기치를 들고 앞장에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일군들이 사회수산부문의 앞장에서 련합기업소가 기치를 들고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심장으로 받들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하여 겨울철물고기잡이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도루메기잡이전투지휘부를 조직하고 배수리와 어구준비, 연유보장, 후방공급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모든 배들이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여러대의 탐색선들을 바다에 내보내여 탐색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물고기떼가 발견된 즉시 근 100척의 배들을 출동시켜 첫 이틀동안에만도 수백t의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어장이 수시로 변화되는 조건에 맞게 일군들은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선단들과 가공모선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를 보장하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그리하여 11월 26일까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천t의 도루메기를 더 잡아 도적으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양화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이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사업소의 책임일군들은 도루메기잡이준비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깐지게 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20여명의 일군들은 배수리전투장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면서 대중을 불러일으켜 4일동안에 10여척의 배수리를 전부 해제꼈으며 어구와 연유준비도 와닥닥 끝냈다. 당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은 인민군대의 수산부문 일군들처럼 물질적조건보장을 앞세우고 현장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면서 어로공들과 함께 치렬한 공격전을 들이대여 첫 전투를 시작하여 4일동안에만도 수백t의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혁신을 일으켰다.

배를 타고 통천앞바다에 신속히 진출한 일군들은 선단과 배들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과학적이며 집중적인 어로전을 완강하게 들이대여 짧은 기간에 천수백t의 도루메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승선지휘를 패기있게 하여

리원수산사업소 일군들이 중심어장을 타고앉아 승선지휘를 패기있게 하면서 어로공들을 불러일으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일군들은 배 한척씩 맡아 수리와 그물, 연유준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솔선 풀어나갔으며 남새와 땔감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물고기잡이전투가 시작되자 일군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어로공들과 도루메기잡이를 하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1253호를 타고 바다에 나간 당책임일군은 기능이 어린 양망기운전공과 함께 기관을 돌리면서 정황을 제때에 처리하였다. 그리고 한밤중에 몸이 불편한 어로공들을 돌봐주는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며 어로공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당책임일군의 모범을 따라 사업소의 일군들은 인민군대의 수산부문 일군들처럼 승선지휘를 패기있게 하여 11월말까지 도루메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혁신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무선결속소에서의 15분간

함경북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를 찾아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얼마전 우리가 함경북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를 찾았을 때였다.

무선대화를 한창 하던 기사장 리영식동무가 반가운 웃음을 지어보이며 앉으라고 손시늉을 하였다.

무선대화기에서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오늘실적은 어제보다 훨씬 높소. 현재 40t수준이요.》

《아니 벌써 40t을 잡았단 말입니까?!》

기사장은 바다에 나가있는 경리위원회책임일군의 목소리라고 하고는 한 일군을 다급히 불렀다.

《빨리 주간 기상예보와 어황자료를 종합해야 하겠습니다.》

어장에서도 륙상에서도 주고받는 대화는 온통 물고기잡이와 관련한 이야기였다.

기사장은 륙지에서 바다에 진출한 선박들에 대한 지휘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책임일군은 어로공들과 함께 중심어장을 타고앉아 집중어로전을 들이대고있었다.

얼마간 동안을 두었던 기사장이 한마디 하였다.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니 못해낼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을 통해서도 경리위원회에서 도루메기잡이전투를 위한 잡도리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

《배수리와 어구의 현대화, 물고기잡이의 과학화, 이 세가지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사상발동입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뗀 기사장이 이야기를 이었다.

경리위원회에서는 물고기잡이에 앞서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리고 당조직별로 어장에서의 화선식정치사업도 착실히 진행하였다.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어로공들의 혁명적인 일본새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자.

이런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지난해보다 5일이상 앞당겨 도루메기잡이전투에 들어갔다. 책임일군들이 직접 탐색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경리위원회의 모든 수산협동조합들에서 먼바다어로전과 가까운바다에서의 집중어로전으로 도루메기잡이를 위한 승선지도를 짜고들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중심어장을 타고앉은 일군들의 모습이 어로공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물고기잡이실적은 나날이 높아졌다.

모든 고기배들이 과학적인 어로방법과 련속적인 어로전으로 매일 도루메기잡이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다시금 만선을 알려오는 누군가와의 무선대화를 하면서 기사장은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이 기세로 나가면 위원회적인 올해 도루메기잡이계획수행은 두배이상 문제없겠소.》

무선대화기에서 울리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가려듣기 힘들었지만 물고기잡이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는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듯싶었다.

우리는 물고기잡이전투에서도 일군들이 대중을 어떻게 발동하는가에 의해 성과가 좌우된다는 확신을 가지며 무선결속소를 나섰다.

특파기자 리 은 남

사업소에서 —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홍원수산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물고기잡이에서

어장에서 진행된 경제선동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로 끓어번지는 동해에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주인공들은 다름아닌 **함경남도예술선전대 소편대원들과 수산사업소들, 시,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다.

도예술선전대의 일군들은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마주앉아 바다에 나가 소편대활동을 벌리기로 하였다. 과장들인 김광식, 김영관동무들과 소편대원들은 다채로운 곡목들을 준비하였다.

지난 11월초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모체)에 도착한 그들은 ㅇ-뜨-1268호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갑판우에서 전투적으로 진행된 주설향, 전일경동무들의 녀성2중창도 좋았지만 김성진, 김성혁동무들을 비롯한 남성배우들의 중창 《바다 만풍가》는 어로공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그들의 노래소리는 그대로 만선의 배고동소리로 이어졌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와 도수산관리국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수산사업소들에 나가 환송모임, 환영모임, 축하모임을 조직하여 어장과 포구들이 경제선동의 북소리, 노래소리로 들썩이게 하고있다. 바다를 끼고있는 시, 군들인 신포시와 락원군, 홍원군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들에 나가 어로공들을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해주고있다.

특파기자

《조타는 내가 잡겠소》

원산수산사업소에서

원산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겨울철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 비결은 일군들이 직접 배에 올라 중심어장을 타고앉아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어로공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신작칙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업입니다.》

도루메기잡이가 시작되여 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 저녁이였다. 도수산관리국 지령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선대화기를 통해 배에 전해졌다. 해상경보이니 빨리 대피하라는것이였다.

얼마후 잠풍하던 바다같지 않게 파도가 몰려왔다. 집채같은 파도가 배전을 치기 시작하였다. 급히 수산사업소의 고기배들이 부두를 향하여 배머리를 돌렸다. 그러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뜻밖의 현실을 목격하였다.

집채같은 파도를 헤가르며 인민군대 수산사업소 고기배들이 중심어장으로 돌진하고있었던것이다. 마치 적함을 향하여 육박하는 전투함선들같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공격정신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배머리를 돌리시오! 조타는 내가 잡겠소.》

기사장 김인철동무가 소리쳤다.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사나운 파도와 싸워서라도 기어이 만선기를 휘날리고야말 결심으로 기사장이 직접 조타를 잡았다. 그리고 격랑을 이겨내며 물고기잡이전투를 지휘하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어로전은 계속되였다. …

이렇게 그들은 어창마다에 물고기들을 가득 실은 만선의 기쁨안고 포구로 향하였다.

도루메기잡이전투로 바다가 끓던 어로전의 나날 사업소일군들도두가 이렇게 대중을 이끌었다.

이곳 사업소의 일군들은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며 물고기잡이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제힘으로 걷는 길이 애국의 길이다

자체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한 담배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놓고

최근 담배련합기업소에서 거의 모든 생산공정을 자체의 힘으로 현대화하였다. 그 규모를 간단히 요약하면 줄거리분리공정을 비롯한 가공공정으로부터 증기생산, 첨가제생산, 종이생산 등 부분별로 6개 공정에 설비대수로는 100여대에 달한다.

그중 80여대의 설비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설치하여 국산화비중을 훨씬 높였다는데 현대화실현의 보다 큰 의의가 있다. PP수지에 의한 띠섬유방사공정설비들만 보아도 전문기계제작단위들에서나 엄두를 낼수 있는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기계설비들을 이곳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식으로 만들어 려과봉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밀고나가면서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는 종이생산공정을 높은 수준에서 확립한것이다. 담배말이용 얇은 종이로부터 담배포장을 위한 굳은판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종이를 다 생산할수 있는 토대가 그쯘하게 꾸려졌다. 이것은 나라의 종이공업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듯 방대한 현대화를 자체의 힘으로 해냈다는 사실은 이곳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당정책결사관철정신과 기풍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에서의 현대화경험을 분석해보면 주목할만 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남의것을 넘겨다보거나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원료, 우리의 설비, 우리의 자재에 의한 생산정상화실현을 기업관리의 전략으로 내세우고 현대화를 밀고나간것이다.

사실 일군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밀고나가면서 종종 부닥치는 문제의 하나가 설비수입이냐 아니면 자체의 설비제작으로 공정을 꾸릴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수입산 설비들로 생산공정을 꾸려야 현대화를 번듯하게 실현하는것으로 여기고 무턱대고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련합기업소지배인 김세명동무는 철저히 우리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공정을 확립하는것을 현대화전략으로 내세우고있다.

이렇게 시작부터 자력갱생의 목표를 내세운 이곳 일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기계제작도 자체로 해내기 위하여 련합기업소산하 기계공장의 설비들을 CNC화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련합기업소에서 그토록 방대한 설비현대화도 마음먹은대로 밀고나갈수 있는 큰 담보로 되였다.

그러나 튼튼한 기계제작기지를 가지고있다고 하여 그 어떤 설비도 다 자체로 만들어 설비현대화를 실현하겠다는 배심이 생기는것은 아니다.

설비, 자재, 원료의 국산화를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애국의 심장으로 접수할 때만이 모든것을 주체적관점에서 보고 실천하게 되는것이다.

려과봉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할 때의 과정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4년전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PP섬유생산공정을 일떠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련합기업소일군들의 흥분은 컸다. PP수지를 출발물질로 하여 려과봉생산공정을 국산화할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사실 자체의 힘으로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띠섬유방사기술을 개발하고 설비들을 제작한다는것은 힘에 부친 일이였다. 제작에 필요한 자재는 내놓고라도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던것이다. 일부 사람들속에서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방사설비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것은 헐치 않다고 하면서 괜히 시간만 랑비하지 말고 설비만은 수입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수입이냐 아니면 우리 힘으로냐 하는 심각한 갈림길에서 당, 행정일군들은 단호하게 결심하였다. 남흥의 로동계급은 당의 국산화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기어이 우리의 PP섬유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도 그 정신으로 분발한다면 방사설비도 얼마든지 자체로 만들어낼수 있다는 목소리가 종업원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때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띠섬유방사기술을 개발하고 그 설비들을 제작해내는데 설사 몇년이 걸린다고 해도 끝을 볼 때까지 내밀 결심을 굳히였다고 한다.

그것은 제힘으로 최신과학기술을 요구하는 방사설비를 만들어내는것이 종업원들에게 자기 힘에 대한 신심을 백배해주고 앞으로 밀고나가야 할 현대화사업도 주체적관점에서 우리 식으로 더욱 통이 크게 벌려나갈수 있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의 결심은 백번 옳았다.

련합기업소산하 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이 반드시 우리 힘으로 해낼수 있다는 신심을 안고 달라붙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이 지난 시기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에서 한몫하였던 오랜 기술자들과 최신과학기술로 무장한 새세대 기술자들 그리고 화학, 기계, 전기, 제관 등 여러 부문의 기능공들까지 망라한 기술력량을 잘 조직해주었다.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은 거대한 힘을 내였다.

이들은 생소한 분야에 대한 기술개척으로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실마리를 찾고 찾으며 띠섬유방사기술을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갔다. 그리고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방사공정설비들을 100% 제힘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내였다.

방사설비들만이 아니다. 분당 수천가치능력의 려과담배권상기를 CNC설비로 제작하여 생산에 도입하고 공기조화장치, 종합제진장치, 첨가제생산설비 등을 자체로 제작도입하는 과정에 련합기업소에서는 무려 수십건의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을 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 나날은 련합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가 자기 힘을 믿으면 제발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애국자가 되고 자기 힘을 믿지 못하면 남만 쳐다보게 된다는 귀중한 진리를 새겨안은 나날이였다.

이번에 련합기업소에 일떠선 현대적인 종이생산공정도 자체로 생산정상화를 믿음직하게 보장하면서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귀중한 창조물이다.

나라의 긴장한 사정으로 담배종이보장이 어려워졌던 지난 시기 련합기업소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굳은판지생산공정을 꾸려놓았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종이생산설비를 보시고 엉뚱한 일을 많이 했다고, 강행군시기에 굉장한 일을 해놓았다고, 어버이수령님의 사상을 받아안은 공장이라는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였다.

그후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날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종이생산공정의 능력을 확장하고 첨단설비들로 꾸리기 위한데 달라붙었다. 나라의 긴장한 종이사정으로 하여 적지 않은 담배생산기지들에서 종이를 수입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련합기업소에는 첨단종이공업기술에 대하여 깊이 파악하고있는 사람도, 그 설계도면을 본 사람도 없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첨단종이생산공정을 꾸려놓는것을 련합기업소의 리익이기 전에 국가적인 리익으로 보았고 인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의의가 큰 문제로 보았다.

그리하여 현대적인 종이생산설비들을 일식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였다. 많은 자금을 요구하는 일이였으나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여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실현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자금이 절약되였고 여기에 자체로 번 자금을 합치니 능히 가능하였던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곳 련합기업소일군들의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을 위한 과학적인 책략이였고 자체로 일떠서기 위한 기업전략이였다.

제힘으로 걸어나가기 위한 이런 과학적인 책략이 없었더라면 련합기업소에서 오늘과 같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제힘으로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없었을것이다. 종이생산공정이 높은 수준에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결과 련합기업소산하 공장들에도 질좋은 종이를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 힘을 굳게 믿는 애국의 정신으로 창조하고 전진하라.

이것이 담배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현대화투쟁과정을 놓고 찾게 되는 귀중한 경험이다.

본사기자 리 철 옥

함경남도에서

3천여정미의 물을 확보할 목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물확보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에서 3천여정미의 물을 확보하면 농사에 필요한 물문제를 해결하여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관개부문 일군들은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다음해농사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를 밟아가며 이 사업을 과학적으로 밀고나가고있다. 그들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앞세우고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함흥수리동력대학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땅속물량의 측정을 과학적으로 하고있다. 여기에 기초하여 땅속의 물보유량에 따라 지하저수지, 우물, 굴포, 졸짱 등 공사대상을 선정하는 사업을 앞세워나가고있다.

현지료해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한 도의 일군들은 금야벌의 관개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물길확장과 구조물보수, 저수지건설, 9개소의 지하저수지와 15개소의 하천보막이 등을 다음해 4월까지 끝낼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단계별공사계획에 따라 능숙한 작전과 지휘로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다.

도안의 각지에서 물확보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금야군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금야벌의 관개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10여㎞의 물길확장과 양수장건설, 수문을 비롯한 20여개소의 관개구조물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근로자들은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련일 혁신이 창조되는 속에 현재 공사는 50%계선에서 진척되고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함흥시 회상구역이 맡은 저수지공사장에서도 타오르고있다. 3만여㎥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이지만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백두대지에서 창조된 청년돌격정신으로 과감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정평군, 신흥군, 홍원군을 비롯한 도안의 그 어디서나 물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된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승리의 대회장을 향하여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폭풍쳐 내달리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다음해농사에 필요한 물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있다.

본사기자

대중운동은 비약적발전의 위력한 무기

평양건축종합대학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젊음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시대를 대표하는 주체적인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서고있다. 그 건축물들에는 유능한 건축인재들의 대부대를 키워낸 평양건축종합대학의 자랑도 비껴있다.

이런 자랑을 안고있는 대학은 얼마전 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다.

대중운동을 통하여 많은 재부를 얻게 되였다는 대학당위원회 일군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과업을 똑바로 정하고 그 관철을 위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들어와 대학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게 된 계기가 있었다.

무슨 일에서나 성과를 거두자면 목표부터 정확히 세워야 하듯이 대학당위원회 책임일군인 최현철동무는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수행하여야 할 대중운동 결의목표를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어느날 당책임일군은 대학당집행위원회 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그리고 뜻깊은 올해에 어떤 선물을 안고 당창건 일흔돐을 맞이하겠는가에 대하여 생각되는 점들을 서로서로 이야기하게 하였다. 저저마다 자신들이 세운 목표들을 제기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당책임일군은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우리 대학을 3대혁명붉은기단위로 만들어보자고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사업내용이 다 있다고 하였다.

모임참가자들모두가 의아해하였다. 그럴만도 하였다. 자기들이 제기한 목표를 수행하자고 해도 힘겹다고 생각하였는데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기때문이였다.

물론 조건은 어렵다. 하지만 인민군대의 창조본때로 일한다면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 당책임일군의 말은 일군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일군들은 당책임일군이 왜 모임에 앞서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건설장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였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였다. 령도업적단위 일군답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앞채를 메고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 그들의 확고한 결심은 곧 결의목표들에 반영되였다.

당책임일군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임철호, 김광철동무들을 비롯한 당일군들을 아래단위 당조직들에 내려보내여 당조직별로, 근로단체조직별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참관사업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로정을 통한 사상교양사업도 의의있게 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전체 교직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2돐을 맞으며 기어이 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지닐것을 결의하는 모임을 조직하였다. 이것은 대학의 교직원모두가 스스로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게 하는 과정으로, 이 운동을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첫 공정으로 되게 한 힘있는 정치사업이였다.

목표를 높이 세웠다고 하여 그것이 스스로 실천으로 이어지는것은 아니다. 대학당위원회 일군들은 결의목표수행에로 교직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게 잘하였다.

우선 대학당위원회 일군들은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을 비롯한 5대교양을 실속있게 벌릴수 있게 잘 꾸려진 교양장소들을 리용하여 사상교양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그리고 제일 어렵고 힘든 건설대상들을 맡아안고 헌신하면서 교직원대중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좋은 점은 그 건설대상들을 결의목표에 반영된 날자보다 앞당겨 끝내도록 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든 교직원들을 정신력의 강자, 실천력의 강자로 키운것이다.

이런 실례가 있다.

대학당책임일군은 대학회관개건공사를 진행할 때 제일 어려운 구간을 사회학과와 기초학과에 맡겨주었다. 이렇게 한데는 목적이 있었다. 사실 이 단위들로 말하면 건설에 대한 과학기술지식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다른 단위에 비하여 부족한 측면이 더 많았다. 이런 단위가 앞장에 서도록 하고 내세워준다면 다른 단위들을 분발시키는데 큰 작용을 할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당책임일군은 부문당비서들인 강희철, 김정룡동무들이 단위의 당원들과 합심하여 맡은 공사과제를 남먼저 훌륭히 수행하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매일이다싶이 전투현장에서 긍정감화교양의 방법으로 총화모임이 진행되였는데 그 실효가 매우 높았다. 온 대학안의 당원들을 분발시켰고 그뒤를 이어 교직원모두가 떨쳐나서게 하였다. 이렇게 되여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학회관개건공사는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대학당위원회 일군들은 공원건설도, 온실건설도, 문화후생시설들을 번듯하게 꾸리는 사업도 교직원대중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모가 나게 그리고 불이 번쩍 나게 해제꼈다.

이 나날 교원들이 교수교양사업에서 지장을 받은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이 더한층 올라갔다고 한다. 대학생들속에서 사회학과 교원들이 진행하는 강의에 대한 좋은 반영이 제기되고있는데 건설부문과 관련한 풍부한 자료들과 경험을 잘 안받침하면서 진행되니 그럴만도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연구사들의 높아가는 열의에 의하여 지난해에 비해 연구성과가 훨씬 확대되였다.

대학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단위답게 변모되여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교육조건과 환경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게 되니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 첨단화를 실현하는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대학당위원회 일군들은 여러가지 체육기재를 잘 갖추어주면서 대중체육열풍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튼튼한 후방기지가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되여 종합축사에는 돼지, 오리, 닭, 토끼, 게사니 등 수천마리의 집짐승들이 욱실거리고 양어장과 태양열온실의 덕도 보게 되였다.

얼마전 여기서 교육부문 일군들의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는데 참가자들속에서 좋은 반향이 제기되였다.

이처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내세운 목표들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 대학에는 많은 재부가 생겨났다.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교직원력량, 유능한 건축인재양성을 위한 훌륭한 교육환경과 조건마련, 믿음직한 후방기지…

하기에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한다.

반년 남짓한 기간에 우리가 거둔 이 성과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고.

우리는 이곳 당조직의 대중운동경험을 통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비약적발전의 무기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며 이 무기를 틀어쥐면 최후승리의 지름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장철범

독자들이 보내여온 편지들을 보고

사회주의대가정에 꽃펴나는 이야기

본사로는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아름다운 우리 생활에 대한 가지가지 이야기를 담은 편지들이 계속 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구성시 청년동에 사는 영예군인 김정림동무는 뜻하지 않은 병으로 팔다리가 마비되였던 자기의 어린 아들을 치료해준 의료일군들에 대한 소행을 전해왔다.

두해전 김정림동무의 아들 대웅이는 심한 고열끝에 팔다리가 마비되여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였다. 여러가지 치료대책도 세워보았지만 특별한 차도가 보이지 않자 부모도 맥을 놓고 주저앉아 근심걱정으로 날을 보내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구성시제1인민병원 의사 량광건동무와 옥류아동병원의 박금옥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한점의 그늘도 져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지극한 정성을 기울였다. 먼저 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하여 수시로 협의회를 가지며 효능높은 치료방법들을 배합한 결과 마침내는 대웅이가 대지를 활보하게 되였다.

김정림동무는 편지에서 당의 인민적보건시책과 그것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된 의료일군들이 있어 영예군인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여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고 아들을 잘 키워 선군시대 총대병사로 내세우겠습니다.》

동대원구역 신흥2동에서 사는 전쟁로병 박동전로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배려로 평양시휴양소에서 보낸 나날들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신흥2동 일군들과 주민들, 휴양소종업원들의 소행을 전하여왔다.

보양생활을 즐겁게 보낼수 있도록 기호에 맞게 만든 초물모자와 체육모자, 신발, 내의, 세면도구와 낚시대까지 마련하여 보내준 동의 일군들과 주민들의 소행이며 휴양소종업원들과 의료일군들의 혈육의 정이 넘치는 봉사를 통해서도 전쟁로병들에게 돌려주는 당의 뜨거운 은정을 다시금 절감할수 있었다는 박동전로인의 편지는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수안군 읍에 사는 특류영예군인 박정철동무는 뜨거운 정을 기울이는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일군들과 읍지구주민들의 소행을 소개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영예군인들을 위하는것은 선군시대 공민의 마땅한 본분이고 의무라고 하면서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는 미덕에 대한 자랑은 락랑구역 통일1동에서 사는 최승화동무의 편지에도 담겨있다.

전쟁로병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영예군인이 되여 돌아온 아들의 장래에 대하여 은근히 걱정하였는데 보름달처럼 환한 처녀가 아들의 동반자가 되여주었고 결혼식을 할 때에는 삼일포특산물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혈육의 정을 기울였다는 최승화동무의 이야기는 날로 미덕이 만발하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느낄수 있게 한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로동자로 일하는 김향미, 강정화, 김미화동무들은 선교구역인민보안서 아래단위 일군인 박향숙동무를 널리 소개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고난의 시기부터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부모잃은 오누이를 맡아 돌봐주면서 때로는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아픈 매도 들며 대바르게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세워준 이야기와 한 로동자의 집을 새 집처럼 꾸려주어 그가 근심걱정없이 마음놓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이야기, 난치의 병진단을 받은 로동자를 위해 병치료에 좋은 보약들도 구해주면서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종업원들을 위해 인민보안원 박향숙동무가 혈육의 정을 기울인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꽃펴나는 내 나라의 자랑찬 현실을 뜨겁게 절감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신현규

믿음과 정속에 태여난 새 모습들

중구역연료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

매개 단위들에 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영예등록장은 대중운동의 나날을 감회깊이 추억하게 하는 전투기록장이나 같다.

얼마전 중구역연료사업소를 찾아 부피두터운 영예등록장을 한장한장 번져보느라니 감동이 아주 컸다.

결의목표실현의 나날에 높이 평가되고 영예롭게 등록된 수많은 종업원들의 긍정적소행의 밑바탕에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훌륭한 사업기풍과 뜨거운 인정미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얼마나 힘있게 벌어지고 훌륭한 열매를 맺는가 하는것은 우리 당일군들이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불러일으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방대하고 아름찬 결의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데서 특별히 활용한 무기는 믿음과 정이였다.

천리마거리작업반의 한 종업원에게 들인 품을 놓고보자.

누구나 대중운동에 대한 드높은 열기를 가지고 결의목표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뛰고있는데 그 종업원은 생활상고충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에서 열성을 다내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자기 몫을 다 하지 못하고있었다.

초급당비서 김화선동무는 그를 잘 도와주었다.

(손가락도 길고짧지 않은가. 그에게 더 왼심을 쓰자.)

초급당비서는 한때 그가 궂은 일에 몸을 아끼지 않고 내대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던 사실을 귀중히 여기였다.

어느날 그를 따로 만난 초급당비서는 그때의 사실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키고나서 그새 우리가 동무를 잘 돕지 못했다,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자, 강심을 먹고 일어서 새 출발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고무해주었다. 그후 친부모의 심정으로 그의 생활에도 깊이 관심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앞질러 풀어주었다.

진정은 명약이다.

자신을 뉘우친 그는 결의목표실현을 위한 좋은 일감을 스스로 찾아하며 열정을 바치였다. 그렇게 되여 영예등록장에도 이름이 오르고 오늘은 당초급일군으로까지 자라났다.

그만이 아니다.

강성호, 김일남, 엄애덕, 조명희동무들…

결의목표실현의 나날 그들도 당조직의 손길에 떠받들려 몰라보게 성장하여 혁신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였다.

믿음과 정속에 태여난 새 모습들,

여기에 이곳 사업소가 높이 세운 결의목표를 실현하고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게 된 주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다.

본사기자

가자, 백두청춘대학으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한 금성정치대학 졸업생들

새로운 시대어가 청년들의 심장을 용암마냥 끓게 하고있다.

백두대지에 울려퍼지던 절세위인의 그 음성이 청춘대오에 격랑을 일으켰다.

우리 혁명앞에 시련과 난관이 막아나설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스스로 찾아와 인생의 첫출발을 떼고 백두대지에 애국의 삽을 박고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치며 청춘대학졸업증을 받은 청년들이 기둥으로 서있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

청춘대학졸업증,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영웅청년, 애국청년으로 생을 빛내일 크나큰 포부를 안고 우리의 청년들이 백두청춘대학으로 보무당당히 들어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백옥같은 충정과 순결한 량심을 지니고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얼마전 금성정치대학의 17명의 졸업생들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 입대하였다.

경력과 나이, 취미는 서로 달라도 그들의 심장은 오직 하나로 고동쳤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여기에 17명의 졸업생들이 대학당조직을 찾아가 터친 심장의 고백이 있다.

졸업생 배광혁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이룩한 위훈이 얼마나 소중하시였으면 청년들모두를 저 하늘이 들리도록 두팔들어 높이 떠받들어주고싶은 심정이라고 하시였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천금같이 귀중한 혁명시간을 우리 청년들을 위해 바치신 원수님의 하해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낄수록 백두산으로 달리는 마음을 걷잡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안겨준 영웅청년이라는 값높은 부름을 심장속에 깊이 새기고 금성정치대학 졸업생답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가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 접하고 온 우주를 통채로 받아안은것만 같았다고 하면서 졸업생 김은석동무는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자자구구 되새겨볼수록 문구마다에 끝없이 흘러넘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 사랑과 은정이 가슴벅차게 안겨와 끓어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습니다.

우리 당은 확실히 복중의 가장 큰 복인 청년복이 있다시며 우리 청년들을 내 나라,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어깨겯고 함께 나아갈 미더운 동지, 전우로 굳게 믿는다고 최상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전위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청춘의 힘과 열정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백두청춘대학의 최우등졸업생이 되겠습니다.》

졸업생 안남혁동무도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티없이 맑고 순결한 충정의 세계에 자신을 세우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백두전장에 달려나가 피와 땀을 깡그리 바쳐 일함으로써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의 체현자로, 선군청년문화의 창조자로 억세게 자라나겠다고 하였다.

졸업생들인 박은미, 전축경, 정은하동무들은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손길을 페부로 더욱 깊이 절감하였다고 하면서 설한풍을 이겨내며 피여나는 만병초처럼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청춘대학졸업증을 가슴에 품고 고향으로 떳떳이 돌아오겠다고 결의다지였다.

졸업생들인 장남혁, 리충혁, 리성철, 림금성, 김철우, 김진혁, 정경일, 김남혁, 최광혁, 로현국, 황명남동무들도 백두전장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울 결의들을 다지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 입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려는 청년들의 꾸밈없는 마음을 엿볼수 있는 심장의 맹세들.

어찌 이들의 심정이라고만 하랴.

백두산총대와 함께 청춘을 빛내이는 병사들과 만사람을 감동시키고있는 강선의 《처녀어머니》며 순위도의 처녀교원, 대홍단의 평양처녀를 비롯한 수많은 청년미풍선구자들,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체육인들의 가슴속에도 백두의 피, 혁명의 붉은 피만이 맥맥히 흐르고있다.

그렇다.

가자, 백두청춘대학으로!

이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고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삶의 주제가, 투쟁의 진군가로 힘차게 부르며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려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가장 아름다운 희망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한영철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개막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경기대회기간 평양, 사리원, 삼지연 등지에서 축구, 빙상호케이, 속도빙상, 빙상휘거, 짧은주로속도빙상, 스키경기들이 벌어지게 된다.

개막식이 1일 빙상관에서 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영훈체육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기대회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종목별체육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더 높은 경기성과로 받들어갈 전체 체육인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의의깊은 경기대회이라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선수, 감독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육체기술적 및 전술적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이번 경기대회에서 더 많은 새 기록을 창조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경기대회상징기발이 게양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대성산체육단과 평양철도국체육단사이의 남자빙상호케이경기가 있었다.

후방가족의 긍지를 안고

청진시 송평구역 근동협동농장에서

청진시 송평구역 근동협동농장 제3작업반에는 자식들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인민군후방가족들이 있다.

당세포비서인 김찬길, 기술원 김철수, 농장원 승인숙, 김혜숙동무들은 가정의 행복도, 조국의 미래도 당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데 있다는것을 심장에 새기고 자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차제로 인민군대에 입대시켰다.

지금 작업반으로는 조국보위초소에서 청춘을 빛내여가고있는 자식들의 반가운 소식들이 연방 날아오고있다.

승인숙동무의 딸이 초소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소식과 김혜숙동무의 아들이 전투정치훈련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는 소식이다.

그런가 하면 김철수동무의 맏아들이 군사임무수행에서 세운 공로로 표창휴가를 받은 소식이 작업반원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작업반의 후방가족들은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수놓아가고있는 자식들의 름름한 모습을 그려보며 맡은 농사일과 원군사업에서 누구보다 앞장서고있다.

조국보위초소에서 보내오는 자식들의 자랑스러운 소식들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작업반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로농통신원 원철남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정성껏 가꾸어가고있다.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라오스와 웰남을 공식친선방문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 귀국

인민무력부장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이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고 1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노광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학 륙군중장과 폰캄 인타부아리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팜 비엣 홍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은 11월 29일 웰남의 수도 하노이를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웰남인민군 장령, 군관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총련 새 세대 일군대표단이 떠나갔다

정희철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새 세대 일군대표단이 1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로므니아국경절에 즈음하여

사진전시회 개막

로므니아국경절에 즈음한 사진전시회가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주조 로므니아대사관, 조선로므니아친선협회의 공동명의로 1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개막되였다.

우리 나라와 로므니아기발들이 행사장에 세워져있었다.

개막식에는 류경일부위원장을 비롯한 조선로므니아친선협회 성원들,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들과 게오르게 쵸아꺼 주조 로므니아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로므니아림시대리대사 연회 마련

국경절에 즈음하여 게오르게 쵸아꺼 주조 로므니아림시대리대사가 1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 김진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였다.

로므니아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클라우스 요한니스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로므니아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세계에이즈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세계에이즈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보건부문,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세계보건기구대표,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여러 나라들에서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고 하면서 의료봉사부문에서 에이즈예방을 위한 위생선전사업과 감시활동을 계속 강화하여 비루스의 감염과 전파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에이즈실태와 예방대책 등에 관한 해설들에 이어 서성구역인민병원 위생선전대공연이 있었다.

한편 이날 중앙과 각 도위생선전관들에서 에이즈예방에 대한 집중선전활동이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은 바다정복자들의 자랑찬 위훈을 잊지 않으리!

날바다를 밀어내고 룡매도간석지 6구역을 완공한 황해남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간석지개간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부침땅을 늘여야 합니다.》

황해남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룡매도간석지 6구역건설을 빛나게 완공하였다.

끝간데없이 아득히 장쾌하게

다진 맹세 변치 말자

5년전 어느날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은 커다란 흥분에 휩싸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매도간석지건설을 련합기업소에 통채로 맡겨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것이였다. 이 소식에 접한 간석지건설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들먹이였다.

룡매도간석지건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무르익혀오신 또 하나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뼈에 새기고 룡매도간석지건설을 기어이 완공하겠습니다!》

어느 단위에서나 철석의 맹세를 다지는 이런 불같은 웨침이 터져나왔다.

허나 쉽게는 갈수 없는 길이였다. 폭설과 강추위, 폭우와 무더위, 해일 등 광란하는 자연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수십리의 방조제를 쌓아나가야 할 결사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착공의 첫삽을 박을 때였다. 인적없는 간석지에서 건설자들을 맞아준것은 일망무제한 검푸른 바다와 눈보라뿐이였다. 그 어디에 배낭을 풀어놓을데도 없었다. 하지만 건설자들은 숙소건설이 아니라 3만산발파를 위한 도갱굴진과 도로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방조제를 쌓자면 한시바삐 도갱굴진을 하면서 2㎞에 달하는 도로를 내야 륜전설비들을 공사장으로 들이밀수 있었던것이다. 이 모든 준비작업을 세찬 바다바람과 강추위속에서 짧은 기간에 해제껴야 하였다. 하지만 간석지건설자들은 불가능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은 무한대한 정신력의 밑뿌리가 되여 건설자들의 애국열의를 활화산처럼 폭발시키였다.

당의 크나큰 믿음이 있는 한 뻗어나간 만년방조제를 바라보느라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위대한 기적을 안아온 그들의 모습이 기념비의 군상처럼 우렷이 안겨온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여 어머니 우리 당에 승리의 보고를 올릴 열화와 같은 충정으로 만난시련을 헤쳐온 간석지건설자들의 투쟁이야기의 일단을 전한다.

다진 맹세 변치 말자

우리에게 못해낼 일이 없다. 격동된 심장마다에 이 불변의 신념을 새겨안은 건설자들모두가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도로공사, 3만산발파를 위한 도갱굴진을 동시에 내밀 통이 큰 작전계획을 세웠다. 이때 일군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해야 할 작업량이 너무도 엄청났던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설자들이 지휘부로 달려왔다.

《룡매도간석지건설을 통채로 맡겨준 당의 믿음을 절대로 저버릴수 없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힘찬 웨침, 결사의 각오와 의지가 번뜩이는 얼굴들…

그들은 맵짠 추위속에서도 정대와 곡괭이로 산중턱을 허물어내고 함마진으로 도갱굴진을 다그쳐나갔다. 크지 않은 도갱속에서 함마를 휘두르고 착암기를 돌린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방대한 토량과 암반을 처리하고 도로를 내기 위한 전투도 힘차게 벌어졌다. 간석지건설자들은 밤낮도록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야말로 생사를 판가리하는 치렬한 결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 신념의 구호를 심장에 새긴 건설자들은 지구도 통채로 들어옮길 기세로 폭풍쳐내달렸다. 10여일동안 벌어진 치렬한 전투의 그 나날 이들은 식사시간마저 아까와 현장에서 주먹밥을 씹었다. 드디여 3만산발파의 날이 왔다. 결사의 각오를 안고 뚫은 도갱에 폭약을 만장약한 그들은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지심을 뒤흔들며 대지를 진감시킨 3만산발파의 메아리, 그것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막아서는 난관과 애로를 맞받아 뚫고나가며 순간순간을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온 간석지건설자들이 피끓는 심장으로 터치는 애국충정의 메아리였다.

하지만 룡매도간석지건설은 첫걸음을 내짚은데 불과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때없이 들이닥치는 폭우와 해일, 부족되는 자재와 설비로 하여 간석지건설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103(2014)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간석지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때부터였다. 간석지건설에서는 비약의 열풍이 더욱더 세차게 몰아쳤으며 건설속도가 1.5배로부터 2배로 올라가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4호중간방조제를 건설할 때였다. 방조제가 멀리 뻗어나갈수록 자동차들의 운반회수가 줄어들었다. 기존방식대로 해가지고서는 공사속도를 보장할수 없었다. 당앞에 다진 맹세대로 공사를 제기일에 해내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모두가 이 문제를 놓고 방도를 모색하였다. 이때 련합기업소의 한 일군이 바다바닥에 굴착기를 내려놓고 감탕을 퍼올려 방조제건설속도를 높이자는 안을 내놓았다. 굴착기를 밀물때에는 방조제우에 올려놓고 썰물때에는 드러난 바닥에서 감탕을 퍼내게 하면 많은 기름을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부쩍 높일수 있었던것이다. 하지만 자칫 실수하면 순간에 굴착기를 날바다에 수장해버릴수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바다바닥에 굴착기를 내려놓고 작업하는것은 모험이라고 하였다.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이 물음앞에 간석지건설자들은 스스로 이 길을 택하였다.

그들이 이 길을 택하지 않는다고 탓할 사람은 없었다. 더우기 그것이 모험이라는것을 이들이 왜 모르랴.

경애하는 원수님께 완공의 보고를 올릴 그 시각을 하루, 한시라도 앞당길수만 있다면 그 어떤 험난한 길에도 서슴없이 뛰여드는것이 간석지건설자들이였다.

육중한 굴착기를 감탕바닥에 내려놓고 첫 작업을 진행할 때였다. 한초한초 시간이 흐르는 속에 모두의 시선은 굴착기에 쏠리였다.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기우뚱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더니 감탕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굴착기가 빠진다.》

다급하게 울리는 소리와 함께 간석지건설자들은 한덩어리로 뭉쳐 바줄들을 굴착기에 매고 힘껏 잡아당겼다.

그들은 결사의 각오로 굴착기를 끌어당겼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지만 누구도 바줄을 놓지 않았다. 감탕에 빠지는 굴착기를 끌어내기를 그 몇번…

실패를 거듭하며 그들은 끝끝내 철판우에 굴착기를 올려놓고 옮겨가면서 작업하는 방법을 찾아 방조제건설속도를 2배로 높일수 있었다.

날바다를 헤가르며 뻗어나간 방조제, 이것은 부서져 가루돼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열백번 불에 타도 곧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광란하는 날바다를 막은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보루이다.

발자욱은 파도에 씻기여도

자기가 겪는 고충이나 희생이 아무리 값비싼것이라 하더라도 창조물의 덕을 입게 될 인민의 리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고생을 달게 여기는것이 용감한 바다정복자들이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해 정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떨쳐나선 간석지건설자들앞에 엄혹한 추위가 닥쳐왔다. 이들의 의지를 시험해보려는듯 맵짠 바다바람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간석지건설자들은 순간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날 공사장에 뜻하지 않은 난관이 조성되였다.

밀물을 타고 수많은 얼음장들이 밀려들어와 방조제주변을 뒤덮었던것이다. 두께가 70㎝이상 되는 큼직한 얼음장들이 하루에도 두번씩 밀물에 밀려들어와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간석지건설자들은 너무도 안타까와 주먹으로 땅을 쾅쾅 두드렸다.

이때였다. 방송차에서 당책임일군의 힘있는 목소리가 울리였다.

《얼마전 룡매도간석지건설장으로 한 전쟁로병동지가 편지와 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저는 이 시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새해벽두부터 룡매도간석지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에게 드립니다. …》

편지를 읽고난 그는 시를 읊었다.

시의 구절구절을 새겨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의 눈앞에는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수호하고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한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불굴의 모습이 삼삼히 어려왔다.

불뿜는 적의 화점을 몸으로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은 리수복영웅, 온몸에 심한 부상을 입고도 최후의 힘을 모아 중기관총의 압철을 력으로 눌러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긴 조군실영웅, 수류탄을 입에 물고 육탄이 되여 적진에 뛰여든 강호영영웅…

전화의 조국수호자들의 투쟁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광란하는 자연의 횡포를 파감히 박차고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며 한치한치 방조제를 쌓아나간 대계도간석지건설자들처럼 살며 투쟁한다면 못해낼 일이 무엇이겠는가.

긴 설명이 필요없었다. 당원들부터 함마를 들고 나섰다. 그 뒤를 따라 청년건설자들이 떨쳐나섰다.

횡포한 자연을 길들여 완공의 날을 앞당기자. 이런 결사의 각오로 건설자들은 심장의 피를 끓이며 백열전을 벌렸다. 함마로 얼음장을 까내며 한치한치 전진해나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의 모습은 적의 화점을 향하여 내달리던 영웅전사들을 방불케 하였다. 얼음장이 백번 들어오면 백번 까내면서라도 방조제를 기어이 쌓아올리려는 간석지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어느새 얼음장들이 제거되자 또다시 방조제는 뻗어나갔다.

지난 4월 룡매도간석지 6구역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1차물막이공사는 간고성의 최절정을 이루었다. 드넓은 구간으로 서서히 드나들던 밀썰물이 일정하게 좁혀진 마감막이구간에 집중되자 그 힘은 참으로 무서웠다.

자연이 이기나 사람이 이기나 끝까지 겨루어보자. 이런 배짱으로 물결에 뭉텅 없어진 방조제구간을 다시 쌓고 떠내려가면 또다시 쌓기를 몇십번…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어지간히 지쳤고 이들의 의지를 시험해보려는듯 바다물은 계속 밀려들어왔다가 밀려나가군 하였다. 그때마다 방조제의 일부가 흔적도 없이 떨어져나갔다. 현실은 종전공법으로는 방조제공사를 마무리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당앞에 결의한 날자는 절대로 드팀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의 투쟁을 지켜보고계신다. 이것이 용감한 바다정복자들의 드놀지 않는 신념이고 배짱이였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과 기술일군들은 간석지설계연구소의 기술집단과 합심하여 피타는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면서 륙상설비에 의한 마감막이바닥 보호공법이라는 새로운 공법을 창안도입하였다.

주체104(2015)년 4월 26일, 방조제의 마지막 파렬구를 메우며 육중한 돌들이 바다로 떨어졌다. 삽시에 돌무지가 솟구쳐오르며 수십리 방조제가 이어졌다. 드디여 바다물이 흐름을 멈추었다.

순간 온 룡매도를 진감하며 터져오른 만세, 만세의 환호성!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간석지를 바라보는 용감한 바다정복자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다. 래일엔 여기 황금나락 설레이고 새 거리 솟아 행복의 웃음꽃 넘치리라는 신심과 랑만에 넘친 노래소리가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방조제건설에 피와 땀을 바쳐가는 사람들은 간석지건설자들만이 아니였다.

국가검열위원회 일군인 홍준철동무는 스스로 자재보장이라는 큰 짐을 맡아안고 하루에도 수백리길을 오고가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김산철, 리정철동무들도 간석지건설에 깨끗한 량심을 바쳤다. 자기앞에 맡겨진 과업만 수행해도 평가를 받을수 있는 이들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 간석지건설자들과 언제나 함께 서있다는 자각이 스스로 이 길에 나서게 하였던것이다.

어찌 이들만이랴. 국가계획위원회, 화학공업성, 금속공업성, 수매량정성을 비롯한 련관단위 일군들, 황해남도당위원회와 도급기관,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간석지건설에 필요한 연유,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들과 생활필수품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날바다를 밀어내고 드넓은 간석지벌을 펼쳐놓은 방조제는 소리높이 전해주고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의 대지를 한치한치 넓혀가며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이 새겨온 값높은 위훈을, 뜨거운 애국의 자욱자욱을…

글 특파기자 박 철
전명일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환경보호를 위한 창발적인 일본새

함흥시 흥덕구역 일군들과 근로자들

함흥시 흥덕구역에서는 오물을 경제생활에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기지를 꾸려놓고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이 사실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사업은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자원을 보호증식시키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두해전 가을 어느날이였다.

새로 임명되여 구역의 여러곳을 돌아보던 구역당책임일군은 어느 한 지구에 쌓여있는 오물무지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동행하던 구역인민위원회의 일군은 책임일군에게 이것이 큰 걱정거리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터놓았다.

구역의 주민지구들에서 나오는 탄재와 각종 오물은 계속 쌓이면서 주변환경을 어지럽히는것은 물론 농경지에도 영향을 미치고있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책임일군의 가슴은 쓰리였다.

(속수무책으로 걱정만 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떻게 하나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날부터 책임일군은 과학기술서적들을 파고들며 오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그리고 군중속으로 들어가 방도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이 과정에 좋은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도시건설대의 한 로동자는 가까운 곳에 있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나오는 카바이드재를 탄재와 일정한 비률로 섞어 블로크를 빚으면 세멘트를 쓰지 않고도 질좋은 블로크를 생산할수 있다고 하였고 어느 한 기술자는 선별기를 만들어 설치하면 오물을 부류별로 다 갈라내여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다고 하였다. 군중은 역시 선생이였다.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된 책임일군은 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고 일군들과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되여 구역에서는 오물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지를 꾸리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

구역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구역인민위원회 사무장 장룡천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선별기를 제작설치하고 블로크를 찍는 기계도 차려놓았다.

도시건설대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처음에는 선별공정과 블로크생산공정을 한계렬로 꾸려놓고 운영하다가 얼마후에는 두개 계렬로 확장하였다. 여기서 많은 블로크가 생산되고있는데 그 질이 좋아 단층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에서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구역에서는 오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지에 탕크를 큼직하게 만들어놓고 선별과정에 나오는 식물성오물로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고있다. 오물속에서 갈라낸 막돌은 석축용으로 리용하고있으며 파비닐은 수지가공기지에 보내여 재생리용하고있다.

도시오물이 보물로 된셈이다. 쓸모없던 도시오물을 선별하여 원료, 자재로 리용하고있는것은 물론 거리와 마을의 위생환경이 개선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글 및 사진 특파기자

30여년을 뜨락또르와 함께

단천시 장내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반장 리상률동무는 30여년동안 변함없이 뜨락또르와 함께 사회주의협동벌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운전대를 잡은 때로부터 그는 뜨락또르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여러가지 수리공구들과 예비부속품들을 갖추어놓고 기대판리를 깐지게 하여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여나가고있다. 그는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작업반앞에 어렵고 힘든 과제가 나설 때마다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으며 여러건의 창의고안을 영농공정에 도입하였다.

이 나날 그는 작업반원들을 발동하여 수리기지를 꾸려놓고 뜨락또르수리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어 농업생산에 이바지하였다.

오늘도 리상률동무는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영농사업성과로 맞이할 일념안고 뜨락또르발동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원기연

내 조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더한층 다져준 의의깊은 계기

우주과학기술토론회에 참가하고

우주개발능력은 해당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정도와 경제적잠재력을 가늠할수 있게 하는 척도라고 말할수 있다. 최첨단과학기술과 경제력의 종합체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구위성과 운반로케트제작, 정확한 궤도진입 등을 통해 그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얼마만 한 높이에까지 이를수 있는가를 가장 정확히 평가할수 있기때문이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있는 우주는 나라마다 자기의 종합적국력을 과시하는 광활한 무대로, 국력평가의 시험장으로 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얼마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열린 우주과학기술토론회는 내 조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더한층 굳건히 다져주는 참으로 의의깊은 회합이라고 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주체조선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국력을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과 국가과학원, 사회과학원, 교육위원회,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의 수백명의 교원, 연구사,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세울수 있는 론문들이 수많이 제출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교원 김철준동무와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연구사 김장순동무가 제출한 론문 《행성의 시위치결정정확도개선에 관한 연구》와 《도형합성법에 의한 인공지구위성의 광학수감부마스크제작기술》을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지구상에서도 자기가 목표한 곳으로 정확히 가자면 지도가 있어야 하듯이 무한대한 공간을 자유로이 날아다니자면 천체들의 위치를 확정한 별지도가 있어야 한다. 이 별지도를 작성하자면 천체들의 운동과 지구의 미세한 진동, 중력마당에서의 빛의 특성은 물론 영향을 줄수 있는 자그마한 요소들도 모두 찾아내여 측정하고 분석종합하여야 한다.

또한 물체들이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것처럼 우주공간에서 비행자세를 바로잡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때문에 무중력상태인 우주공간에서 비행자세를 바로잡아주는 각종 수감부제작기술은 인공지구위성제작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다.

현실적의의가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명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이와 같은 론문들은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선군조선의 합법적권리》, 《상관정합법에 의한 인공지구위성의 위치추종에 대한 연구》, 《CCD를 리용한 별수감부의 설계와 적용》, 《잡음대역폭적응조종에 의한 위성응답기의 특성개선에 관한 연구》, 《위성적재용 합성개구레이다화상의 운동변위알고리듬과 목표검측방법에 관한 연구》, 《지구관측위성개발에서 통합모의체계의 구축과 적용에 관한 연구》, 《위성화상자료에 의한 고층기상요소결정방법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수많은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이 론문들에서는 위성응답기의 감도와 추적특성을 개선하며 일기에 관계없이 지상의 대상물들을 관측하고 위성개발기간을 단축하며 원가를 줄이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되였다. 또한 위성화상자료를 통하여 고층에서의 바람방향을 비롯한 기상요소들을 정확히 결정함으로써 항공운수부문에서 비행체들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할수 있는것을 비롯하여 위성에서 보내는 각종 화상자료들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널리 도입하기 위한 현실성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기한것으로 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00% 국산화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들로 무한대한 우주공간을 꽉 채워갈 만만한 포부와 야심이 자자구구마다에 어려있는 토론들을 듣느라니 우리의 눈앞에는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솟구쳐오르던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장면들이 다시금 밟혀왔다.

기억도 생생하다. 준엄한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1998년에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우주에 올랐을 때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컸던가.

우리의 위성, 주체조선의 인공지구위성에서 내보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듣는것이 너무도 꿈만 같아 잠들지 못하였던 우리 인민들이 《광명성-2》호에 이어 첫 실용위성인 《광명성-3》호 2호기가 또다시 우주에 오른 날에는 말그대로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마음먹은대로 우주를 정복해나가는 그처럼 강대한 국력을 가진 조국에서 살고있다는것으로 하여,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가 더욱 휘황찬란할것이라는 확신으로 하여 기쁨의 웃음소리, 환희의 노래소리는 그칠줄 몰랐다. 아마도 남의 도움을 받아 이룩해놓았거나 밑천이 풍부한 속에서 마련해놓은것이라면 그처럼 끝없는 격정에 설레이지 않았을것이다.

그렇게 세상이 들썩하게 울려퍼졌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오늘은 온 나라를 휩쓰는 우주과학기술열풍으로 화하였으니 우리의 가슴도 마냥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기에 우리와 만난 국가우주개발국의 책임일군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우리는 해마다 진행되는 토론회들을 통하여 우주과학기술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여드는 과학자들과 대학교원, 연구사들의 대오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음을 가슴뿌듯이 체험하고있습니다. 그럴수록 우주개척의 초행길을 앞장서 헤치시며 온 나라에 우주정복의 세찬 열풍을 일으켜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눈물겹게 어려와 잠 못 이루는 우리들입니다. …》

온 나라가 인공지구위성의 정확한 궤도진입으로 하여 끝없는 환희로 들끓던 그 시각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고계시는분이 있었으니 그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터전을 닦아주신 우리 수령님의 로고가 바로 그 한순간에 다 어려오고 수령님의 숭고한 꿈과 리상이 꽃펴나고있는 자랑찬 현실이 바로 그 시각에 비껴흐르고있었기에 수령님께서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는 생각으로 손수건을 적시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우주강국건설구상을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실로 활짝 펼쳐주고계시니 국가우주개발국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가슴가슴이 어찌 그렇듯 세차게 끓어번지지 않을수 있으랴.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크고 과학은 실패속에서 솟구쳐오른다고 하시며 위성개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거듭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에 떠받들려 우리의 위성은 강설을 박차고 날아오르며 우주정복의 대통로를 열어놓았다.

세계를 둘러보면 우주에 자기의 위성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은 많다. 하지만 100% 국산화된 위성을 가지고있다고 떳떳하게 말할수 있는 나라는 과연 몇이나 되는가. 그것도 가장 극악한 제재속에서,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도전속에서, 가장 엄혹한 강추위와 눈속에서 위성발사를 성공시킨 실례를 아마 인류는 찾아보지 못할것이다.

이처럼 력사에 전무후무한 대성공을 마련해주시고도 위성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먼저 축하해주시며 자신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어버이장군님을 뵈옵고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데 대한 충정의 보고를 올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일떠선 곳의 해발고는 비록 높지 않지만 이곳은 우리 민족의 존엄이 응축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하시며 우리의 위성과학자들을 위하여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돌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은 무한대한 우주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영원히 전해질것이다. 정녕 주체조선의 우주과학기술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적이고도 무한대한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였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열기를 띠는 토론회장을 다시한번 둘러보는 우리의 귀전에 위대한 령장의 힘찬 선언이 메아리쳐왔다.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인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며 주체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련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에 끝없이 울려퍼지고있었다.

앞으로 련속 솟구쳐오를 우리의 위성들은 자기의 희망찬 동음으로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해갈것이다.

세계를 압도하며 우주강국에로 치달아오르는 무진막강한 조선의 국력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의 심장들에서 뿜어져나오는 강력한 힘의 분출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눈부신 비약의 궤도에 올라선 우리의 우주과학기술이 세계패권을 쥘 날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본사기자 한경철

파쑈《정권》의 본성을 드러낸 《유신》독재부활책동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민주화열망과 굴함없는 반파쑈투쟁에 의해 군부파쑈독재체제가 끝장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반역통치배들에 의해 남조선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적이 없으며 인민들은 독재《정권》의 폭압으로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당해왔다. 특히 《유신》의 후예들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이후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는 깡그리 짓밟히고있다. 남조선에서 독재통치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하는 파쑈적망동이 끊임없이 감행되였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극도에 달한적은 없었다.

남조선당국이 인민들을 대상으로 벌리고있는 파쑈탄압책동은 과거의 악명높은 《유신》독재를 련상케 하는 치떨리는 범죄행위이다.

지난 11월 14일 남조선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투쟁은 현 《정권》의 독단과 전횡,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는 민심의 드센 폭발이였으며 민주주의와 독재,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인 각계층 인민들의 정의로운 선택이였다. 이날 각지의 투쟁현장들에서는 보수당국에 력사교과서《국정화》책동과 로동시장구조개악을 중지하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힘차게 울려나왔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중총궐기투쟁은 매국과 반역을 일삼는 현 보수당국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경고였다.

하지만 이미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지고 독재통치밖에 배운것이 없는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피묻은 이발을 드러내며 인민들의 정당한 항거에 야만적인 폭력으로 대답해나섰다. 민중총궐기투쟁전부터 그에 대해 《불법시위》니, 《엄정대응》이니 하고 으르렁대던 보수당국은 인민들이 투쟁에 떨쳐나서자 수만명의 경찰병력과 물대포, 수백대의 차량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탄압해나섰다. 이날 경찰깡패들은 시위자들을 겨냥하여 물대포로 질식성최루액을 마구 쏘아대면서 고령의 한 농민을 중태에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히였으며 수십명을 체포하는 야수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 몸서리치는 광경을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유신》독재가 되살아난것 같다고 한결같이 평하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남조선당국이 민중총궐기투쟁을 구실로 사회전반에 살벌한 폭압정국을 조성하면서 각계의 반《정부》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 사실이다.

남조선집권자와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과 지어 《새누리당》까지 총발동되여 그 무슨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요란히 떠들고있는 속에 사법당국은 수사본부라는것을 내오고 민중총궐기투쟁에 참가한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광란적인 탄압소동을 개시하였다. 하여 민주로총본부와 그 산하 금속로조, 건설로조 등 여러 단체 사무실들이 강제압수수색을 당하고 민주로총 위원장은 탄압을 피해 어느 한 절간에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민주로총 위원장을 기어이 체포하여 사법처리하겠다고 고아대는가 하면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투쟁을 《불법집회》로 몰아대며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있다. 이런 속에 남조선집권자가 시위자들을 테로분자들에 비유하는 망언까지 내뱉으며 사법당국을 인민탄압에로 부추겨 민심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고있다.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각계층 인민들을 폭압무력을 내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는 남조선집권세력의 파쑈적악행은 《유신》독재자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긴급조치》를 발동하면서 진보적정당들과 단체,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 학살하던 피비린 만행을 그대로 방불케 한다.

남조선당국의 파쑈탄압책동은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고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불순한 흉계의 발로이다.

인민을 기만, 우롱하며 반역을 일삼는 자들은 인민의 규탄과 버림을 받기마련이다.

현 남조선집권자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경제민주화》니, 《국민행복》이니 하면서 근로인민들을 위해 그 무엇을 할것처럼 숱한 공약들을 람발하였었다. 그러나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은 후에는 언제 그랬던가싶게 모든것을 뒤집고 외면해버렸다.

제입으로 내뱉은 공약들을 줴던지고 반인민적정책을 강행추진해온 현 남조선집권자는 반역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다. 력사교과서《국정화》책동과 로동시장구조개악놀음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매국과 반역을 정당화하고 근로인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력사교과서《국정화》와 로동시장구조개악은 절대다수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 부딪치고있다. 이로 하여 현 남조선집권자의 통치기반은 뒤흔들리고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얼마전에 있은 민중총궐기투쟁은 보수당국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불신과 항거심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현실은 반역통치를 유지하고 보수《정권》을 연장하려는 현 남조선집권세력을 극도로 당황망조케 하고있다.

통치위기수습을 위해 폭압에 광분하는것은 반역통치배들의 상투적수법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도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인민탄압의 강화에서 찾고있다. 파쑈광들은 그 무슨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대며 민주로총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있다. 민중총궐기투쟁이후 파쑈경찰의 감시속에 든 대상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 수백명에 달하고있다.

반《정부》투쟁의 기치를 들고나선 진보민주세력을 모조리 초토화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며 반역정책을 한사코 추진하려는것이 현 보수집권세력의 술책이다. 그들에게는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권력욕만이 꿈틀거리고있다. 그 실현을 위해 절대다수 인민대중의 리익을 짓밟으며 그들을 파쑈독재의 희생물로 만들고있는것이다.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는 귀를 틀어막고 매국반역정책을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파쑈폭압으로 뒤받침하는 현 남조선집권자의 통치수법은 명백히 《유신》독재통치의 재현이다.

하지만 폭압은 더 큰 항거를 낳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반성은커녕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파쑈폭압의 강화로 대답해나서고있는것은 오히려 《정권》위기를 더욱 심화시킬뿐이다.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면서 파쑈적탄압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남조선보수당국의 횡포에 인민들은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더욱 강력한 《정권》퇴진투쟁으로 항거해나서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보수당국의 위협공갈에도 불구하고 2차 민중총궐기투쟁을 예정대로 진행할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하며 계속 반역정책과 파쑈탄압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될것이다.

장 윤 남

우주에까지 뻗쳐오르는 재침광기

일본이 《우주기본계획》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본래의 계획은 일본이 2009년에 우주개발전략본부회의에서 정식 결정한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반동들은 우주관련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급속히 늘이고 여러차례에 걸쳐 군사정탐위성을 우주에 쏴올렸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올해초 앞으로의 10년동안에 우주관련산업을 5조￥규모로 확대하기로 한 새로운 《우주기본계획》을 결정한데 이어 이번에 정탐위성을 현재의 4기로부터 8기로 늘이기로 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정탐위성을 배로 늘이기로 한것은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적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현시기 일본반동들은 재침의 법적, 제도적장애물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군사대국화에 전력을 다하고있다.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진출이 무제한 허용되자마자 미국으로부터 수십억US$분의 최첨단무기들을 대량적으로 구입하고있다.

올해 군사예산은 420억US$로서 력대 최대규모에 달하였다. 재정적담보까지 마련한 일본반동들은 정탐위성을 늘여 재침야망을 손쉽게 달성하려 하고있다.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수집을 진행하는것은 도발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일본반동들의 정탐위성증가놀음은 재침준비의 완료단계이다. 하루빨리 정탐위성들을 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해외침략에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들을 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재침에 나서자는것이 일본반동들의 속심이다.

1980년대에 벌써 일본은 《리용이 일반화된 위성을 〈자위대〉가 리용하는것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밀리에 군사정탐위성도입을 추진해왔다.

1997년에는 국내최대규모의 정보본부를 조직하고 거기에 위성정보를 분석, 처리하는 화상부를 내왔다.

우주에 대한 군사적진출을 더욱 발광적으로 다그치는 일본의 책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보다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일본이 우주에 침략적군사위성을 마구 쏘아올리면서도 우리의 평화적우주개발을 시비질하고있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평화적우주개발의 일환으로 1998년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하였을 때부터 일본은 그 무슨 《미싸일발사》니, 《위협》이니 하며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나중에는 우리 나라에 대한 송금, 수출제한, 우리 나라 기발을 단 선박들의 일본입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조선단독제재를 강화하는것으로 우리에게 악랄하게 도전해나섰다.

우리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했을 때에는 《북조선의 미싸일발사움직임을 놓고볼때 우주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있다.》고 하면서 그를 구실로 《우주기본계획》을 처음으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우주에로의 군사적진출을 목표로 한 《우주기본계획》의 계단식확대는 처음부터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코에 걸고 강행되였다.

일본이 무엇때문에 우리의 평화적우주개발을 악의에 차서 시비질하고있는가는 명백하다. 우리의 평화적우주개발활동을 《위협》으로 매도하여 저들의 침략책동, 우주에로의 군사적진출을 합리화하자는것이다.

남의 발뒤꿈치를 물고늘어지면서 음흉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처사야말로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일본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위협》을 운운하면서 정탐위성발사와 같은 군사대국화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세계는 일본의 재침책동이 몰아올 파국적후과에 대해 우려하고있다.

과거 일제의 침략사를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반동들의 군사적망동을 날카롭게 주시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의지를 똑바로 알고 무분별하게 날뛰지 말아야 한다.

리 철 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집회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집회가 11월 18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베네수엘라공산당,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과 베네수엘라공산주의청년을 비롯한 청년조직들, 칠레공산당 등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인사들,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초대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베네수엘라공산당 국제비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오신데 대하여 칭송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가 도발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책동속에서도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만 나아가고있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세계 진보적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베네수엘라공산주의청년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베네수엘라공산주의청년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지난 기간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서로의 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은 베네수엘라인민과 청년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으로 된다.

앞으로 두 나라 청년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호상 지지와 련대를 더욱 두터이 해나갈 의지를 재확언한다.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청년조직 국제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의 베네수엘라방문은 반제투쟁과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이번에 우리는 조선의 현실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조선청년들의 투쟁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미제가 아무리 조선을 압살하기 위해 발악해도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의지를 꺾을수 없다.

공동의 적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두 나라 청년들사이의 지지와 련대,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집회참가자들은 《김정은동지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사회주의 만세!》, 《베네수엘라인민과 조선인민사이의 친선단결 만세!》를 호창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란마》호와 일곱자루의 총

꾸바인민에게 있어서 오늘은 잊을수 없는 날로 력사에 기록되여있다.

1956년 12월 2일, 꾸바의 오리엔떼주의 바다기슭에 자그마한 배 한척이 조용히 닻을 내렸다. 거기에는 수십명의 꾸바혁명가들이 타고있었다. 그 배가 바로 《그란마》호였다. 피델 까스뜨로동지가 인솔한 꾸바의 혁명가들이 몬까다병영습격에 이어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메히꼬에서 무장부대를 편성한 후 《그란마》호를 타고 풍랑사나운 까리브해를 건너 꾸바땅을 밟은것이다.

《자유냐, 죽음이냐》의 구호를 들고 조국땅에 상륙한 그들은 첫걸음부터 원쑤들과의 피어린 격전을 벌렸다. 전투끝에 대다수가 희생되고 살아남은 12명이 7자루의 총을 가지고 산으로 들어갔다. 7자루의 총으로 시작된 꾸바혁명의 불길은 근로대중의 심장속에서, 전국적판도에서 타올랐다. 1959년 1월 1일 꾸바의 혁명적무장부대들은 수도 아바나로 진격하여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꾸바혁명의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꾸바군대와 인민은 《그란마》호를 꾸바혁명의 상징으로 간주하고있으며 혁명가들이 꾸바땅에 상륙했던 력사적인 그날을 꾸바혁명무력절로 기념하고있다.

혁명승리후 꾸바인민은 꾸바공산당의 령도밑에 영광스럽고 긍지높은 자랑찬 승리의 력사를 수놓아왔다. 무지와 몽매, 빈궁과 락후만이 지배하던 꾸바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배우고 일하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룩되여 꾸바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오늘 꾸바인민은 승리로 자랑찬 나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있으며 앞날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라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공산당의 령도밑에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꾸바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를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있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꾸바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우리 인민은 꾸바혁명무력절 59돐을 맞는 형제적꾸바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내면서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수 진

문명하고 발전된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오늘은 라오스국경절이다.

라오스는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으로 1945년 10월 독립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라오스땅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지배의 마수가 끈질기게 뻗치였다. 미국은 타이와 남부웰남을 거점으로 하여 라오스에서 특수전, 국부전쟁을 감행하였으며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라오스인민은 오랜 기간 간고하고도 성스러운 반제반미투쟁을 벌려 1975년 12월 2일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로부터 라오스인민은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사회건설의 길을 걷게 되였다. 라오스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사회적진보와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진보적인 사회제도와 정권이 강화되고 정치적안정이 보장되고있으며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축성되였다.

라오스에서는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각적인 경제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정부는 경제적편파성을 없애고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과 실정에 맞게 농업과 림업, 수력발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련의 대규모기업창설을 통하여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있다. 교육을 발전시키고 민족문화전통을 보존, 계승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고있다.

2020년까지 나라를 락후한 나라들의 대렬에서 벗어나게 하는것이 라오스인민혁명당의 목표이다.

정부는 제7차 5개년사회경제발전계획기간에 년간 수출장성률을 18%로 끌어올릴 목표를 내걸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히 주요수출항목들인 광물, 농산물, 목제품 등의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 3월 라오스인민은 라오스인민혁명당창건 60돐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라오스는 자주권존중,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평화, 친선, 협조의 대외정책을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다. 아세안과 뿔럭불가담운동 등 지역 및 국제기구들의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특히 주변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오늘 라오스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근면하고 용감한 정신과 전통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 나라를 화목하고 정의로운 문명한 나라로 일떠세울 일념을 안고 투쟁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라오스인민이 라오스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리념을 고수하고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본사기자 라 명 성

미국과 서방의 테로지원책동 단죄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11월 23일 한 외교석상에서 미국의 테로지원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미국이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를 막후에서 조종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테로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는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은 유해로운 존재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단죄하였다. 이슬람교나라들이 적들의 위험한 책동에 맞서나가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한편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11월 24일 한 외교석상에서 테로분자들을 지원하는 서방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이 테로를 중동지역에서의 저들의 리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하고있다고 까밝히고 모든 나라들은 테로가 세계적인 위협이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반테로투쟁에 적극 협력해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란국회 의장 알리 라리자니가 11월 23일 한 외교석상에서 미국과 서방의 이중기준정책을 규탄하였다. 반테로 및 반마약투쟁을 비롯한 주요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이중기준을 적용하고있으며 테로단체들을 조작하고 그에 대한 무기제공에 열을 올리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자기들의 그릇된 정책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여러 나라에서 파업과 시위 ‖

핀란드의 헬싱키와 반타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얼마전 처지개선을 위한 우편봉사부문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파업이 일제히 벌어졌다. 로조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파업들에는 수백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파업참가자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고 로동조건을 개선할것을 요구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의 가즈니주에서 얼마전 테로분자들의 살인만행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최근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가 자불주에서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7명의 민간인들을 무참히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천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시신을 들고 행진을 벌리면서 무고한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한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

총기류범죄

미국에서 총기류범죄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11월 27일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즈시에 있는 한 진료소에서 정체불명의 무장범죄자가 마구 총사격을 가하여 여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실업자 증대

프랑스에서 10월에 실업자수가 358만 9 000명이상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보다 4만 2 000여명 더 많은것이라 한다.

일본의 무력배비책동

일본이 무력배비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그 무슨 외딴섬방위의 미명하에 오끼나와현의 이시가끼섬에 500명의 륙상《자위대》를 배비할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이러한 무력배비책동은 주변지역나라들의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온갖 악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11월의 나날은 복잡다단하였다.

하늘과 땅, 바다, 우주공간에서의 치렬한 군비경쟁, 여러 지역에서 테로의 성행, 유럽피난민위기의 확대 등 비정상적인 일들이 그칠줄 몰랐다.

그가운데서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와 불안을 자아낸것은 여러 지역에서의 테로의 범람이였다.

로씨야에서는 지난 11월 1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자국려객기를 추락시켜 224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테로분자들을 남김없이 처벌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11월이였다. 하지만 지난 한달동안에 테로행위는 근절된것이 아니라 많은 지역을 휩쓸었으며 전세계를 대혼란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12일 레바논에서 2차례의 폭탄공격사건으로 40여명이 죽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다음날에는 프랑스의 빠리에서 테로공격사건들이 련이어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극단주의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는 빠리에서의 련쇄적인 테로가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그런가하면 빠리에서 테로습격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이슬람교국가》는 인터네트에 새로운 동영상을 게재하고 《이라크와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에 뛰여든 모든 나라들은 프랑스처럼 종당에는 핵심지역에서 습격을 받게 될것이다.》라고 위협하면서 워싱톤을 공격할것이라고 공개적인 선언을 하였다.

프랑스련속테로사건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20일에는 또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 있는 한 호텔이 이슬람교극단주의세력으로 추정되는 무장악당들의 테로습격을 받았다.

국제사회는 련속적으로 일어나는 테로사건을 두고 미국 등 서방에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

로씨야의 스뿌뜨니크방송은 《9.11사건이 되풀이되고있다. 그리고 자신이 문명세계에서 살고있다고 믿던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반테로전〉을 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세계를 극도의 정치적혼란과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속에 빠져들게 한 미국 등 서방을 단죄하였다.

지난달에 들어와 유럽피난민사태는 수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온 피난민수는 11월중순에 이르러 100만명에 달하였다.

외신들은 유럽피난민사태는 철두철미 미국의 지배주의책동, 《색갈혁명》에 그 근원이 있다고 하면서 유럽나라들은 그에 맹종맹동한 대가를 치르고있다고 전하였다. 유엔총회마당에서는 수많은 피난민이 쏟아져나오고있는 중동의 험악한 사태를 놓고 서방나라들에 《당신들이 무슨짓을 하였는지 아는가?》라고 질타하는 소리가 계속 울려나왔다.

지난달에 조선반도정세 역시 사람들의 초점의 대상으로 되였다. 의도적으로 정세를 악화시킨 미국때문이였다.

여러 기회에 우리에 대한 체질적이며 병적인 거부감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인권》소동에 광분하였는가 하면 우리에 대한 《테로지원국》재지정문제를 들고나왔다.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해 일본, 남조선과의 군사공조를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을 타격할수 있는 신형《하푼》미싸일을 남조선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본과 《비상사태시》뿐아니라 평화시기에도 집단적대응을 다루는 새 군사조정기구를 내오기로 결정하고 남조선당국과 《4D작전계획》을 공식 채택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일본, 남조선과 각각 맺은 쌍무군사동맹관계들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무력증강과 침략적인 미, 일, 남조선3각군사동맹구축을 합법화할수 있는 토대를 든든히 닦아놓았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변하지 않았으며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군비확장책동에 매우 광란적으로 매달렸다. 미륙군은 군수독점체인 노스로프 그라만회사와 순항미싸일들에 대비한 통합항공미싸일방위(IAMD)전투지휘체계를 시험하였다.

미공군은 새로운 전략핵미싸일개발을 다그치는 한편 아시아의 서남부지역에 개량형조기경계관제기를 배비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나날이 쇠퇴몰락의 나락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는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부지해보려는 단말마적인 발악이였다.

지난달에 일본의 군국주의책동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거리로 되였다. 2일 고베시 쥬오구에서 해상《자위대》의 최신예잠수함 《세끼류》호를 진수한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있는 해상요격미싸일 《SM—3 블로크 2A》의 최종시험을 단행하고 실전배비하기로 하였다. 그런가하면 《우주기본계획》개정안을 발표하여 앞으로 10년간 정탐위성을 현재의 4기로부터 8기로 늘이려고 획책하였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을 부추기는 미국의 처사였다. 미행정부는 정보수집과 경계감시, 정찰능력을 높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일본에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3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실은 일본과 미국은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지 않을 평화파괴자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지난달에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에 대한 미국의 비호두둔은 가뜩이나 긴장한 중동정세를 악화시켰다.

얼마전 미국무장관은 이스라엘수상과의 회담에서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강점책동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면서도 팔레스티나인들의 반이스라엘공격만을 테로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지난달에 로씨야와 미국 등 서방나라들사이의 관계가 더욱 랭랭해졌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우크라이나사태를 걸고 로씨야에 가한 제재를 다음해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미하원은 우크라이나에 3억US$의 군사적원조를 할당할것을 쪼아박은 2016회계년도 국방예산안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이것으로 지역정세를 복잡하게 만들어 어부지리를 얻어보려 하였다. 하지만 일은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제반 사실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우리가 사는 행성이 평온해지려면 온갖 악을 낳는 근원인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해버려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력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며 철리이다. 악으로 살찐 제국주의는 반드시 악으로 망하기마련이다.

본사기자 박 송 영

과학기술소식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나노살충제 개발

최근 이란에서 나노기술을 리용하여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해충을 죽이는 살충제를 개발하였다.

지금 세계적으로 사용되고있는 여러 종류의 합성살충제들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연구사는 빛분해 및 생물합성살충제에 나노기술을 도입하여 효률을 높임으로써 살충제사용량과 그것이 환경에 주는 부정적영향을 줄이였다.

이 살충제는 해충의 중추신경계통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관상용식물이나 담배, 목화 등의 작물재배에 리용할수 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51189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